

- 나의 꿈, 나의 바람은
- 내가 이룬 가장 큰 성취는
- 천천히 서두르면서
- 시련 너머 나의 꿈
- 나의 가치를 '자전거'로 표현하자면

비매품



ISBN 979-11-977371-0-7

꿈꾸는 청소년들의 성장 에세이 길을 찾다

전남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꿈꾸는 청소년들의 성장 에세이
길을 찾다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꿈 꾸는
청춘 들 의
성장 에 세 이

길을 찾다

책을 내면서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전남장학회의 역할을 겸하고 있으며, 매년 1,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12억 원 내외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한 푼 한 푼 모은 도민들의 기탁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투명하며 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가 최대의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장학금을 비롯하여 예전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장학금이 많아졌습니다.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받기도 수월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마움을 느끼기보다는 당연시하고, 투자를 투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남아서 나눠주는 부의 분배처럼 여기는 경향도 있어 의미가 퇴색하기도 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뭔가 문턱을 넘는 듯한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각자 꿈청춘의 길을 찾아보고 이를 에세이로 풀어냄으로써 다시 한번 다짐하며 넘어가는 문턱을 만들어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자기소개서와 에세이를 제출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조금 번거롭게도 느껴졌지만, 막상 에세이들을 접하고 하나하나 차분히 읽어보니 정말 애절한 사연들이 많았고, 그저 한번 읽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웠고 소중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 장학금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장학금으로부터 시작한 나의 이야기”를 주제로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공모에 응한 에세이들 중 장학의 뜻을 전파하기에 적합하거나 의미를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골라 시상도 하고 이를 책으로 묶어 널리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공모전에 참여한 모두가 이 책을 계기로 스스로의 다짐을 돌이켜 보면서 미래의 꿈을 차곡차곡 이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상 1, 최우수상 1, 우수상 6, 장려상 10, 입선 10 등 총 28명의 에세이를 선정하여 여기에 모았습니다. 선정된 에세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글솜씨에 놀랐습니다. 그만큼 진정성이 있기에 그런 감동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심사 대상에 오른 다른 에세이들도 다 간직하고픈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장학금 가치는 액수로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 장학금이 위기를 극복하는 종자돈이 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청춘의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 홀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사는 학생에게 적은 돈이지만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 피를 나눈

가족 셋이서만이라도 하루 세 끼 식사를 함께하길 바라는 소망이 담긴 이야기. 장학금이 계기가 되어 더 큰 장학금을 받고 더 큰 기회를 얻게 된 아이들의 이야기 … 거창한 것만이 꿈은 아닙니다. 소박하지만 진정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그 꿈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수업비, 장학금”, “덕분에”, “변화를 향한 나의 날갯짓”, “나의 가치를 ‘자전거’로 표현하자면” 등등 … 제목만 나열해도 장학금의 가치를 듬뿍 느끼게 해줍니다. 이 책이 아직 꿈을 찾지 못했거나 꿈을 찾을 동기를 갖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등대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수많은 장학생 선발의 일에 지쳐 있던 우리들도 우리들의 장학사업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탈출구가 되고, 새로운 도전의 마중물이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장학금을 통해 ‘도움받는’ 고마움을 알고, 그래서 다시 ‘도움 주는’ 약속을 하는 어린 학생들의 마음가짐을 보며 에세이를 읽는 기쁨을 누립니다.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 항상 자신의 고향 전남을 잊지 않고, 사랑으로 되돌려 줄 줄 아는 인재로 성장하여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꿈이 있고 뜻이 있어도 경제적 형편 때문에 이를 펴지 못하는 청춘들이 있다면 더 이상 아프지 말고 우리 진흥원과 함께 헤쳐 나갈 기회를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뒷받침해 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힘찬 응원의 손길도 기다립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모전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김선태 목포대 국문학과 교수님, 김영미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님, 이돈삼 전라남도 대변인실 기자님, 그리고 장학위원회의 위원으로 역시 에세이 심사에 참여해 주신 김경자 전라남도의회 의원님, 박정현 한국섬재단 사무총장님, 이병삼 전라남도교육청 과장님, 곽행구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님, 정인경 여성가족재단 팀장님, 김상구 (사)목포포럼 대표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획부터 출판까지 정성을 다해 수고한 우리 원의 임은희 선생에게 각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에세이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도움 주신 모든 분들에게 두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2021년 12월 17일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고 석 규**

| chapter.1 |

[대상]	내 인생의 수업비, 장학금 - 선명훈	8
[최우수상]	덕분에 - 권지윤	14
[우수상]	향해 - 이효진	18
[우수상]	변화를 향한 나의 날갯짓 - 오이든샘	23
[우수상]	늦각이 대학생의 비상 - 강수화	28
[우수상]	나의 가치를 '자전거'로 표현하자면 - 구지원	32
[우수상]	인구학자의 꿈을 꾸다 - 강지	37
[우수상]	내 꿈과 나의 이야기 - 김명찬	42
[장려상]	진정한 공감, 성인권 변호사를 꿈꾸며 - 윤혁주	49
[장려상]	시련 너머 나의 꿈 - 장옥순	53
[장려상]	열심히 살아온 나, 고생했다 - 정재훈	56
[장려상]	좋은 상담사가 되는 길 - 이령원	59
[장려상]	작지만 큰 나비효과 - 허정욱	62
[장려상]	타인을 도와주고 이롭게 하는 자외선 차단제 같은 나 - 김주향	64
[장려상]	따뜻함을 심어주는 정신과 의사가 되자 - 정현수	67
[장려상]	11월의 장미 - 강리	71
[장려상]	가족들과 함께 먹는 소중한 밥 한 끼 - 김예원	75
[장려상]	DEAR. MOM - 박주향	78

| chapter.2 |

[입선]	가죽처럼 가치를 더욱 빛내는 사람을 꿈꾸다 - 김예주	82
[입선]	청춘도 방향도 두렵지 않아 - 김초원	85
[입선]	기억될 사람이었음을 바라며 - 서유진	89
[입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 오신행	92
[입선]	직업적인 꿈, 가치관으로서의 꿈, 목표로서의 꿈 - 윤서연	95
[입선]	실패가 아닌 또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기회 - 서태현 .	100
[입선]	세계적인 골프선수 '이 담' - 이담	102
[입선]	내 발자취 - 권영윤	105
[입선]	오늘도 달리는 아이 - 부민지	108
[입선]	천천히 서두르면서! - 고은영	112

꿈꾸는



성장 에세이



길을찾다

청춘들의



| chapter.1 |

- [대상]** 내 인생의 수업비, 장학금 - 선명훈 (서울대학교)
- [최우수상]** 덕분에 - 권지윤 (광주보건대학교)
- [우수상]** 향해 - 이효진 (서울대학교)
- [우수상]** 변화를 향한 나의 날갯짓 - 오이든샘 (한빛고등학교)
- [우수상]** 늦각이 대학생의 비상 - 강수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우수상]** 나의 가치를 '자전거'로 표현하자면 - 구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우수상]** 인구학자의 꿈을 꾸다 - 강지 (동덕여자대학교)
- [우수상]** 내 꿈과 나의 이야기 - 김명찬 (순천대학교)
- [장려상]** 진정한 공감, 성인권 변호사를 꿈꾸며 - 윤혁주 (화순고등학교)
- [장려상]** 시련 너머 나의 꿈 - 장옥순 (목포제일정보고등학교)
- [장려상]** 열심히 살아온 나, 고생했다 - 정재훈 (목포대학교)
- [장려상]** 좋은 상담사가 되는 길 - 이령원 (선문대학교)
- [장려상]** 작지만 큰 나비효과 - 허정욱 (건국대학교)
- [장려상]** 타인을 도와주고 이롭게 하는 자외선 차단제 같은 나 - 김주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장려상]** 따뜻함을 심어주는 정신과 의사가 되자 - 정현수 (순천매산고등학교)
- [장려상]** 11월의 장미 - 강리 (경희대학교)
- [장려상]** 가족들과 함께 먹는 소중한 밥 한 끼 - 김예원 (영광고등학교)
- [장려상]** DEAR. MOM - 박주향 (목포해양대학교)

※ 장학금 수혜 당시 소속 학교명 기재



[대상]

내 인생의 수업비, 장학금

선명훈

2018년 미래인재 장학금

저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에서 주어지는 기회들을 잡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알려주지 않은 길을 가다 보면 피치 못하게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수에서 배운다고들 하지만 그러한 배움에는 항상 수업비가 따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직 23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가 겪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어떤 점들에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금이 저의 인생 수업비가 됐는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저희 부모님께선 제가 굳이 멀리 가서 힘들게 지내는 것보다는 기술을 배워 근처에 터를 잡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젊은 시절에, 서울살이를 해보셨었고, 그게 고생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희 형편이 제 타지생활을 뒷바라지하실 정도로 넉넉하시진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세상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서울대를 가면 그래도 어떻게든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서울대에 붙지 않으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 다짐하고 집의 창고를 개조한 단칸방에서 독수공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3년을 보낸 후 운 좋게도 저는 서울대에 서류합격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시에 대해 무지했던 저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는데, 바로 면접 일자를 잘못 안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나면, 면접이 학과에 따라서 1, 2차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저는 2차 면접 일자만 알고 있다가 제가 사실 1차 면접이며, 면접 전날 밤이 돼서야 제 면접이 다음 날 오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저는 사색이 됐고, 아버지에게 차로 태워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버지는 밤 11시에 전남 장흥에서 출발해 5시간 동안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새벽 4시에 서울대학교 면접장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차를 타고 가면서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자 행담도 휴게소에 내려서 잠깐 쉬며 얘기했던 것 그리고 면접장 앞에 차를 세우고 담요를 덮고 면접시간까지 새우잠을 자던 것은 기억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효도해야겠다 다짐하는 계기가 됩니다.

네. 그렇듯이 저의 대학 생활은 첫걸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운수가 좋아 다행히 면접의 결과가 괜찮았고 그 결과 저는 서울대학교 신입생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여기서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 이제 놀아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3년 독수공방의 반작용이지 않았을까?’ 라고도 생각합니다. 대학에 가면 노는 게 당연하다고 들었던 얘기들도 한몫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쌈짓돈을 가지고 기숙사에서 지내며, 1학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도 2, 3개를 하

고 매일 저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하며 다른 방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시야의 폭도 많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는 경제 관념이 없었기에 지출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돈이 없으면 이런저런 아르바이트, 예를 들어 웨딩 아르바이트, 호텔 서빙아르바이트, 물류 아르바이트, 캠퍼스 투어, 과외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때마다 할 수 있는 데로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루살이 같이 지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항상 놀러만 다니는 저를 보고 너 서울대생 맞냐고 많이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 신입생 때의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고, 정말 열심히 다양한 잊지 못할 경험들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의 목돈은 항상 필요하리라 생각해 최대한 저축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1학년 말에 700만 원 정도 저축을 해놓을 수 있었고, 이는 전적으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2학년이 되어 또 다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때 인재육성 장학금이 저를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2학년 기숙사를 신청하는데 소득 분위기를 실수로 1분위 낮게 입력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부정 서류 제출로 기숙사에서 강제 퇴거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만약 제가 장학금을 이용해서 목돈을 모아두지 않았다면, 급하게 월세를 구할 보증금도 없었을 것이고 아마 자취의 생활비도 감당이 되지 않았을 것입

니다. 이런 이유에서 제가 제목을 ‘인생의 수업비’ 라고 지은 것인데요. 즉, 아무것도 모른 채로 연고 없는 홀몸으로 타지생활을 하면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무조건 하게 됩니다. 물론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고 많이 얘기하지만 그러한 실수에는 결국 수업비가 듭니다. 그것이 자신의 시간이 될 수도,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 저의 실수에 대한 수업비를 인재육성 장학금이 내주지 않았다면, 저의 실수는 복구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학금은 저의 실수의 상한치를 늘려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의 보증금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덕분에 저는 다시 학교생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취비와 저의 불규칙한 지출은 잘 감당이 되지 않았고, 1학년 때의 불성실한 태도가 학업에 지장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군대에 가게 됩니다.

저는 모집병으로 입대하여 파주 25사단 전차대대에서 전차 포수로 복무하였고, 군대 월급이 과거보다 많이 올라서 월급을 전부 군 적금으로 모아 약 600만 원을 가지고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역하고 나서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1년 동안 남도학숙에서 생활을 단순화하고 정신을 가다듬으며 학업에만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대학은 도착점이 아닌 출발점이라는 것을 명확히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삶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여태까지 그저 성적 올리기에 급급하여 공부했다면, 지금은 자신을 수양하는 공학자의 마음가짐으로 학업에 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 제가 앞으

로 갈 방향이 어디인지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생겼고, 그 결과 다른 과를 복수전공 해야 할 것 같아 1년 정도 학교를 더 다녀야 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장학금이 없었다면 엄두를 내지 못했겠죠, 1년에 생활비가 약 14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학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면,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저는 장학금 덕분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학업에 임할 수 있었고, 현재는 자교 재료공학 전공을 복수로 전공하고 대학원에 진학해 국가의 핵심인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저 수동적으로 정해진 길을 따라가면 되는 고등학교의 생활과는 다르게,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나의 미래가치를 정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일상의 결정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 그것은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의 기회비용들을 항상 내며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1학년 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냈습니다. 거의 모든 과의 사람들을 다 만나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어찌 보면 제가 다른 생산적인 일을 포기하고 선택한 결정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경제적인 기회비용은 필연적으로 생기겠지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얻은 무형의 경험들은 앞으로의 인생에서 제가 내릴 결정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혹은 술 때문에 늦바람이 드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경제적 기회비용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우리 장학생에게 돌려줌으로, 우리는 결과적으로 유동적이고 더 폭넓은 결정들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저로서는 적어도 한 학기당 200시간의 기회비용을 받았으니, 사람을 만나도 몇십 명, 책을 읽어도 몇십 권, 여행을 가도 몇 곳을 갈 기회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저의 선택은 더 다양했고 제 대학 생활은 더 풍부했습니다.

특히 요새 불경기이다 보니, 학생들이 필연적으로 졸업을 늦추게 되고 그로 인해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시기도 늦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도 장학제도를 성실히 활용한다면 이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이야기 중에 아버지가 세 아들에게 10달란트를 주자 아들들은 각각 두 배를 가지고 혹은 그대로 아니면 빈털터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 인재 장학생들은 모두가 20달란트를 가지고 오는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 수업비를 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최우수상]

덕분에

권지운

2020년 성적우수 장학금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22살 권지운입니다. 공고가 뜬 것을 보고 에세이를 작성하려고 생각해 보니 장학금을 받게 된 지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느껴져요. 그 1년을 되돌아봤을 때 후회보다는 뿌듯함이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뿌듯했던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엄마가 혼자서 생계를 이끌어 나갑니다. 물론 지금 생활에 턱 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공부, 취미 등 맘껏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대학생활을 하면서 장학금 한 번을 받지 못했던 저는 엄마한테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아 항상 짝짝한 마음이 남아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는 자책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형편이 좋지는 않지만 국가 장학금까지도 받지 못해 더욱더 서러웠습니다. 대학교 학비를 버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학교생활비, 용돈은 내가 벌어서 쓰자는 마음 하나로 고3을 졸업한 후 지금까지 편의점공장, 치킨집, PC방, 빵집 아르바이트까지 3년을 쉬지 않고 달려오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엄마가 말해준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을 그냥 한번 넣어보자는 마음으로 작년에 신청했던 날이 생각납니다. ‘설마 내가 되겠어’ 라는 생각에 기대하지 않았는데 통장에 들어가 보니 150만원이 들어와 있어 놀랐습니다. 다음 학기는 엄마한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안도하면서 엄마가 엄청 즐거워했습니다.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할아버지, 고모들에게도 축하를 받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기말고사가 며칠 남지 않았던 시점이라 너무너무 피곤하고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이 있었는데 장학금을 받고 나니 시험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방학이 찾아왔습니다. 그전에 3번의 방학이 있었는데 항상 노는 게 목표였던 저는 이후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장학금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보다는 지금까지 해보고 싶던 거, 하지 못해왔던 거를 도전하라는 엄마의 말씀에 저는 해야지 다짐만 했지 시도해보지 못했던 토익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토익은 간호사에게 필수 중 가장 필수인 항목입니다. 고등학교 내내 영어를 잘 하지 못해 힘들었던 게 생각나기도 하고 시험 비용이 한번 볼 때마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어서 지금 봐봤자 취업할 때쯤엔 유효기간이 끝나 아까울 것 같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회다’ 는 생각으로 토익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고 책을 사고 공부를 해 시험을 봤습니다. 비로 높은 점수는 아니었지만 토익이란게 어떤 것이고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하다는 것과 시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

다. 또 다음엔 부족한 부분을 중점으로 공부를 해나가고 듣기를 들을 때는 시험장과 비슷한 느낌으로 들어야겠다는 등 다음 토익 시험을 대비해 어떻게 준비할지를 생각했습니다. 이때 시험을 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또 토익을 미루고 또 미뤄 정작 필요할 때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토익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인재육성 장학금 덕분에 토익에 기초를 자세히 알게 되었고 토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처음 장학금을 받았던 그 기쁨을 잊지 못합니다. 장학금을 받았을 때의 느낌과 기분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자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자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목표가 확실히 없으니 더 많이 할 수 있던 공부도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그만뒀다는 걸 장학금을 받은 덕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습으로 인해서 더블 강의를 듣고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제일 힘들었던 학기였습니다.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오기만 해도 하루가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피곤해서 그러지 못하는 게 저를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지쳐 새벽 늦게까지 잠과 싸우느라 힘들 때마다 제가 작은 종이에 써놓은 저의 목표 '장학금' 이 세 글자를 위에 덧붙여 따라 쓰면서 이겨내고 공부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쉽지만은 않았지만 목표가 있기에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학과 특성상 학생 수가 많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등수까지 한 번에 오르는 쉽지 않았습니

다. 몇 등수 차이로 장학금은 못 받았지만 그 전의 등수보다 위로 두 배 이상을 꺾충 뿔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를 자책하기만 했는데 장학금으로 인해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를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나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학기에는 같은 방식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장학금은 공부에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방학 중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와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도 했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나머지 금액은 저축해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시험이 2주도 안 남은 상황이지만 목표를 잊지 않고 남은 기간 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 에세이를 쓰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라고 말은 해왔지만 결국에 저는 저의 꿈인 간호사를 목표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토익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꿈까지 달려가는 과정에서 인재육성 장학금은 제게 많은 발판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에세이 제목은 ‘덕분에’ 입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경험했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인재육성 장학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학금을 받는 그 날까지 또 열심히 달리고 달려서 성장하고 있을 테니 기대해 주세요!

[우수상]

항해

이 효 진

2017년 희망키움 장학금

창대한 각오와 함께 떠난 여정에서 폭풍우를 만나면 배와 함께 선원의 마음도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굳은 의지와 빛나는 희망은 생각보다 쉽게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배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빛을 비춰주는 것만으로도 선원은 이 항해를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게 됩니다.

부족한 것에 더 매력을 느끼는 인간의 본능 탓인지 모르겠지만, 어릴 적부터 책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1년에 500권씩 독후감을 써 냈던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집에 오면 텅 빈 책장에 항상 놀라곤 했습니다. 친척에게 물려받은 역사 전집이 전부였는데, 그 두꺼운 스무권짜리 전집을 닳도록 읽었습니다. 그리고도 부족해서 지역도서관에서 늘 대출한도를 꽉 채워서 집에 잔뜩 가져왔고, 학교가 끝나면 학교도서관에서 사서선생님이 퇴근하실 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학교에서 책을 선물받으면 너무 기뻐서 읽고 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생일선물로 동네 서점에서 어린이 천자문을 골라 품에 꼭 안고 오던 날이 아직도 생생할 만큼, 제 유년기는 늘 책과 함께였습니다.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보통의 삶을 누려가다 집이 결국

파산했을 때,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생활을 하겠구나. 그 때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잡아준 것도 책이었습니다. 책 속에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겨내서 당당한 주인공이 되곤 했습니다.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는 늘 위기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 그 깨달음이 지금까지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저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보다는 형편이 많이 나아졌지만, 어린마음에 여전히 소위 ‘금수저’ 친구들을 보면서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고액과외를 받고, 입시컨설팅을 받고, 비싼 인강도 마음대로 듣고, 양질의 교재들을 마음껏 활용해 최고의 효율을 내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보였습니다. 정말 탐나던 것은 물질 여유가 주는 심적 여유였습니다. 그래서 실력으로 여유를 가지려고 더 노력했습니다. 학원에서 집어주는 내용이 시험에 다 나왔다는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고민해서 분석한 내용이 시험에 나왔을 때 더 자신있게 풀 수 있을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물어볼 사람이 없었기에 정보검색능력은 기본이었고, 온갖 서적을 뒤져가며 혼자 알아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은 자기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시골 일반고 출신이라고 무시받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자사고, 외고, 강남 8학군 출신 친구들에게 자격지심이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서울에 집이 있고 씽씽이도 많이 다른 동기들과 어울리려 이런 저런 자리에 어떻게 든 빠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이미 대학교 수준까지

배워왔다는 친구들 사이에서 밤새워가며 공부했습니다. 과외 다섯 개를 하면서 동아리와 학생회까지 하고 나니 삶에 여유가 없음을 느껴졌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경영학과에 와 놓고 돈에 치인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도 힘들게 했습니다. 과외 없이도 자유롭게 문화 생활을 하고 놀러 다니는 친구들과 저를 많이 비교했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게 여유를 준 것이 바로 장학금이었습니다. 돈과 시간 사이에서 시간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헬스를 시작했고, 음악회도 보러 다닐 수 있었습니다. 품이 정말 많이 들어 꿈도 못 꿰던 연극 동아리에서 배우로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한두 푼에 연연하며 질보다 양을 찾아 헤매던 날들을 벗어나 경험과 나의 행복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학금이 당장 인생을 바꿀 만큼 아주 풍족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투자를 시작하고 시야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후 제가 보게 된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보는 색다른 도구를 얻었다는 사실에 너무도 즐거웠고, ‘부’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단지 나 혼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하던 그 때에, 함께 잘사는 것이 뭔지 알려줬습니다. 어떤 이들은 왜 가난한지, 빈곤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너무도 자연스럽게 소외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막연한 정의감이었고, 어찌면 지적 허영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했던 것은 결국 내가 정상에 올랐을 때, 리더

가 되었을 때 하고 싶은 일이 뭘까 고민할 때마다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학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싶다는 꿈을 그 때부터 꿔고, 지금도 여전히 꾸고 있습니다.

혼자만 잘돼야한다는 마인드를 갖고 성장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부하지만 저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와 함께, 멀리 가려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기까지, 주변 많은 분들의 선의에 기뻐했습니다. 입학한 이후에도 역시 수많은 도움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좋은 학교에서 수학할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 꼭 사회에 보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 대신 장학금을 받으며 더 큰 꿈을 꾸도록 지원해주시는 이유는 결코 혼자만의 쾌락만을 추구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워나갈 경영학이, 학우들과 해낼 많은 활동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토록 굳은 다짐이 있기에,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끝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홀로 떠나는 바다는 차갑기만 하기에, 도망치고 싶은 적도 많았습니다. 주변의 기대와 남들의 괘시 어느 즈음에서 오롯이 나를 지켜내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장학금이라는 금전적 도움은 단지 물질의 풍족 뿐 아니라 책임감과 의지를 굳건히 제공했습니다. 현재에 꿈을 맞추기보다, 꿈에 저 자신을 맞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한 뼘 더 성장한 저의 항해는, 경험이 쌓이면
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중심에 가끔 흔들리지만 이내 새
로운 중심을 잡으며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우수상]

변화를 향한 나의 날갯짓

오이든샘

2021년 아릅드리 장학금

변화를 향한 나의 날갯짓

어릴 때에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이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영웅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인권 운동, 민주화운동 등을 접하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무리 큰 힘을 지닌 영웅이라도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세상은 작은 개인들이 모여서, 아주 작은 단계부터 변화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고 생각하였고 이를 제 인생의 커다란 꿈으로 삼았습니다.

예전에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른들이 시키기 때문에 했고 저에게 공부는 딱딱하고 지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대로 공부를 시작하고, ebs 선생님을 통해 본질적인 개념을 배우며 제가 배우는 과목들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목적이 단지 대학 입시에서의 성공 또는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알고 그로 인해 얻는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는 기쁨’을 알려

주고 싶어서 미래에 교사라는 직업을 갖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하였고, 대입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대안학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다양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고 좋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사’ 라는 직업만 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선생님’ 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에 와서 선생님들을 통해 새로운 수업 방식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 수업의 중심은 모두 학생이었습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교과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학생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생각하고 친구들과 토론하거나 함께 활동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철학 수업에서 접한 ‘교육의 목적은 독립이다’ 라는 구절은 저의 교육에 대한 생각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가 성인이 되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회의 요구에 맞춰진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기보다, 학생 개개인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개인을 사회의 부속품으로 여겨 가치를 따지거나 급을 나누지 않고 모두 독립된 인격으로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되면 학생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고 대단한 존재인지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 2권이 있습니다. ‘자기 앞의 생’을 통해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낸다면, 자기의 삶이 어떤 형태이든지 이를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면, 그 인생은 충분히 빛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가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었을 때, 집에만 있다보니 많이 풀어진 제 모습이 정말 죽도록 싫었습니다. 해야 할 것들을 다 미루고 계속 회피하다가 학교에 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멋진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삶을 부정하고 끊임없이 자책과 회피를 반복하다가 결국 회피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깨달은 대로, 제 삶이 어떻게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염세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야 나무야’에서 소외된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가장 훌륭한 삶이라는 내용이 담긴 구절은 제 마음에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분야에 대해 알아볼 방법이 거의 없어 막연하게 대학 진학 후 관련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만 하다가 교내 ‘진로 멘토링’ 시간에서 특수교육과에 진학한 선배를 만나 특수교육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사 초대석’ 수업에서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을 만나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수업을 통해 장애는 극복해야 하는 것, 동정해야 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는 그저 고슴도치의 가시

처럼 그 사람의 한 특징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어서 장애인들이 특수학교와 시설에 모여 사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함께 살아가야 하고 교육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도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소외되지 않고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3 겨울방학 때, 물리에 관심이 생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로 문제가 풀린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에게도 학습도우미 활동을 통해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기초적인 개념을 알려주었는데 제가 그랬던 것처럼 물리에 대한 재미를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리뿐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공부에 대해 본질적으로 접근하자 공부가 재밌었습니다. 공부를 즐기게 되니 입시 앞에 놓인 고3이라도 주체적으로 살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초등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굳혔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탄탄하다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공부를 즐기며 할 수 있습니다. 초등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밑바탕을 확실히 깔아주고 싶습니다.

인생을 흔히 파도가 칠 때 튀어 오르는 작은 물방울 알갱이에 비유합니다. 정말 짧고, 그래서 부질없어 보일 수 있지만 전 삶이 유한하기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 것입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 나비의 날갯짓

이 커다란 바람을 불러오는 것처럼 저의 작은 생각과 행동이 큰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순간의 선택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양자역학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제가 매 순간마다 하는 생각들과 행동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저의 바람은 이상적입니다.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어진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수상]

늦깎이 대학생의 비상

강 수 화

2019년 예능특기자 장학금

2019년 상반기 전남 인재육성 장학생 예체능 부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두 번째 스무 살처럼 설렘을 가지는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설마 내가 될까 하는 마음에 걱정도 들었지만, 용기를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실력과 공평성으로 장학생을 뽑는다면 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진흥원의 예체능 특기자 문학부에서 장학금 지원을 받은 것은 저에게 영광이었고 글을 쓰고 싶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공부가 의무였지만 나이가 들어 제가 원해서 다닌 대학인지 참 즐겁고 좋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대학에 입학했고 제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제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는 순천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며, 문학의 주변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세계 일주를 꿈꾸며 살다가 한 번은 좋은 글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학을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사람에 관한 생각이나 평소애 사물을 보면 좀 더 깊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차분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글

쓰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지금도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동에 대해서 깊이 있고 심도 있게 배워보고 싶어 아동문학 및 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통해 성장하고자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니 조금 더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백일장과 생활 글쓰기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시, 동시, 동화, 수필, 수기 등 다양한 부문에 출품해서 많은 수상 경력이 생겼습니다. 가장 좋았던 일은 작가를 꿈꾸는 이들이 매년 출품하는 신춘문예에 두 번이나 최종심에 오르는 일이었습니다. 2017년에 신춘문예 시 부문 최종심 6명 중에서 2명으로 압축되었을 때 제가 두 명 중 마지막까지 심사위원의 심사평에 있었던 일입니다. 향후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더 문학성이 있고 심도 있는 공모전을 통해 자아 발전을 하겠습니다. 신춘문예를 더 준비해서 당선되고 싶고 제 작품을 모아서 출판도 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2018년에는 순천교육청의 요청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 쓰기 강의를 1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대상 조정래 문학관에서 글쓰기 강의도 하였습니다. 타인 앞에서 문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떨렸지만 열심히 준비해 호평받아 2019년은 순천교육청 소속 교무행정사들에게 인문학 특강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순천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졸업하고 열심히 글을 써서 상을 받았습니다. 2016년 제23회 김유정 기억하기 전국문예 대전 시(우수

상), 동양일보 신춘문예 최종심(시)을 시작으로 2017년 광남일보 신춘문예 최종심(시)에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2018년 순천교육지원청 공무원 대상 시 쓰기 강의 (1년), 초등학교 대상 조정래 문학관 글쓰기 강의(4시간), 공무원 문예 대전 시조(특선) 제8회 대한민국 독도 문예 대전시(특별상) 제14회 동서 문학상 시(가작) 등 자신이 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9년 제1회 국립임실호국원 나라 사랑 시 공모전(최우수상) 제69회 개천문학상 시(가작) 전남인재육성재단 예체능 특기자 선발(문학) 제6회 경북일보 문학대전 가작(시) 순천교육청 교무행정사 대상 인문학 특강(4시간)순천 시민작가 발굴 프로젝트 당선(소설)이 당선되었습니다. 예체능 특기자로 선정이 되어서 마음이 스스로 대견했습니다. 현재는 순천중앙초등학교 재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에 다니고 있지만 좋은 작품으로 지역 문화와 지역 문학의 발전을 꾀 피우고 싶습니다. 시민과 예술가가 공존하며 대중 친화적인 글로 소통하고자 싶습니다. 문학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여 지역민들에게 알리고자 싶습니다. 청년작가들이 열정을 지니고 문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혜택들을 다시 전라남도에서 자라는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문학이 발전해야 전라남도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사고 발달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책을 읽는 어린이의 수준에 맞는 책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책을 자주 읽을 수 있는 동화를 통해 정서적 사회적으로 어린이들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싶습니다. 예

체능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었지만 스스로 노력하여 어휘력이 발전 시키고 좋은 작품들을 써서 전남에 꼭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전이라는 것은 시간을 견디는 힘이 있는 글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글은 모든 사람이 읽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감수성, 생각, 좋은 글을 쓴다면 먼 훗날에도 남겨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따뜻하고 좋은 글을 쓰려고 하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한국 문학에 기억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걸초보은이라는 말처럼 은혜를 갚는 사람으로 저를 지지하고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 따뜻한 글로 보답하고 싶은 것이 전남에서 문학특기생으로 선발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생 에세이 공모전을 통해 저를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설집으로는 『까라멜마끼또 아이스』와 2021년 문화재단 창작지원금으로 청소년 소설을 발간예정입니다. 하루하루는 ‘여행가기 좋은 날’ 이라 생각합니다.

[우수상]

나의 가치를 ‘자전거’로 표현하자면

구 지원

2021년 희망나래 장학금

누구에게나 두 발 자전거를 처음 타는 순간이 있다. 첫 페달을 구르는 순간 “지원아! 페달을 밟으라니까!” 그 순간 그대로 넘어진다. 이것으로 넘어 진지 네 번째다. 좁은 골목, 드문 드문 세워져 있는 자동차. 그 길의 끝과 시작에는 나와 아버지가 서 있다. 보호 장비라고는 안전모 하나. 7살의 나는 세발자전거를 놔두고 두발자전거를 타라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빠, 이 자전거 저한테 너무 커요. 그냥 세발자전거 타면 안 되나요?” 무릎에 묻은 흙을 툭툭 털며 일어난다. 목소리에는 불만이, 미간에는 주름이 가득하다. “너한테 하나도 안 커. 일단 다시 타봐.”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다시 자전거에 오른다. ‘이 골목 꼭 통과하고 만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지기 싫었다. 자전거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밟아, 밟아, 밟아!!” 눈을 꼭 감은 채로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왜 넘어지지 않지? 물음표를 던지며 눈을 떴다. 그렇게 처음으로 오기가 생기고 마음 한편에서는 희열을 느꼈다. 넘어지지 않겠다고 되뇌며 골목 끝으로 달려갔다. 계속해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바람의 흐름과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감하게 뛰어드는 자신감으로 페달을 밟기 시작한 것이다.

자전거의 두 번째 가치, 속도의 조절이다. 계속해서 페달을 밟다 보면 헛발질이 느껴진다. 속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순간이 있다. 빠르게 달리면 바람이 느껴지고, 느리게 달리면 풍경이 보인다. 자전거의 매력은 이 두 가지를 내가 직접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부나 질주라면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다. 검정고시와 수능을 동시에 준비하느라 제대로 쉴 시간이 없었다. 그렇게 슬럼프를 마주한 나에게 잠시의 느낌이 필요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림이었다. 태블릿이 없어서 펜을 잡고 손으로 그리는 것이 전부였다. 덕분에 마당에 앉아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니 반복되는 하루에 꽤 나쁜 변화를 줬다. 마당에 가득 핀 꽃의 꽃잎, 그 속의 암술과 수술, 이파리 한 장까지 관찰했다. 관심을 가지고 꽃을 바라보니 꽃이 나의 마음을 보듬어주었다. 점점 손으로 그린 그림에 매력을 느끼고, 이에 가치를 더해보기로 했다. 그러던 중 SNS에서 소개된 벨루가 영상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고래디자인을 구상하고 해양 보호 브랜드를 창업했다. 이렇게 또 한 번의 도전을 이겨내고 보니 마음의 굳은살이 생겼다. 자전거를 타며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는 브레이크를 당기고, 초록 불로 바뀌는 순간 페달을 밟는다. 이처럼 때론 느리게, 때론 빠르게, 나의 속도를 찾아가는 중이다. 나의 두 번째 가치, 안주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바람을 가르기 시작한 것이다.

자전거의 마지막 가치, 공생이다. 공생,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전거와 자연은 공생관계에 있다. 자연은 자전거를 탄 이의 눈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 자전거는 환경을 보호하며 자연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준다. 대부분 사람은 승용차와 택시가 편하다며 자전거를 외면한다. 자전거처럼 공공·응급의료 분야는 많은 이들이 원하지 않고 기피 하는 대상 중 하나다. 나는 한쪽에 버려진 자전거의 가치를 다시 바라보고자 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은 불안과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공공의료 시스템의 부족함 또한 드러났다. 그중 전라남도는 의료양극화가 심한 지역 중 하나다. 공기 오염으로 인한 폐 질환, 방사능 오염수 방출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오염, 앞으로의 미래에는 예상치 못한 전염병과 재난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환경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먼저 현장에 뛰어들어 절실한 이들 앞에 서고자 한다. 부딪혀 가며, 넘어져 가며 건강한 가치가 있는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왕이면 이런 생각을 하는 많은 청소년과 함께하고 싶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좁은 골목의 끝에서 넓은 거리로, 큰 광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을지 또 누가 알겠는가. 나의 마지막 가치, 사회를 위한 공생의 의지로 페달을 밟고 나아갈 것이다.

청소년의 끝자락, 청년의 시작. 그 사이 어디쯤 내가 서 있다. 많은 이들이 모난 길이라고, 낯선 길이라고 하며, 가지 말라는 길을 택한 나다. 절실함으로 페달을 밟고, 자유롭게 속도를 조절하며, 마음으로 공생한다. 더우면 물을 마시고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며, 그 길이 비록 낯설더라도 모난 길이 아님을 증명해내고 싶다. 나는

긴 여정의 첫발을 내딛었다. 맑은 공기와 상생의 가치를 아는 전라
남도가 물과 우산의 역할이 되어주길 바란다.

[우수상]

인구학자의 꿈을 꾸다

강 지

2020년 성적우수 장학금

인구학자의 꿈을 꾸다

‘인구학자’는 저의 미래 모습입니다. 2018년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금으로 영어 실력을 키우고자 필리핀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어공부 이상의 더 깨달음과 배움을 얻었습니다. ‘인구 문제를 개선하는 보건 인구학자’의 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서민들의 생활은 제 생각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인구 폭증 현상을 겪고 있는 필리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판잣집에는 한눈에 봐도 많은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또 길거리의 많은 아이는 수척해 보였으며 거리를 맨발로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을 목도한 저는 ‘차별사망력’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계층, 환경 등에 따라 사망률이 현저히 차이 나며, 차별사망력 수치가 높다는 것은 건강 형평성의 불균형을 뜻하기에 보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결과제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건강 불균등 분포요인의 사회적 원인 규명에 관한 심화 연구를 통해 그들의 인구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겠노라는 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4년간 진행한 교육 멘토링은 저의 꿈을 구체화해 주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평소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많던 저는 교육 봉사 멘토링 활동 중 멘티에게 출산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엄마가 저 힘들게 키우는 거 보면서 자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라는 멘티의 대답은 제게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교내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졌는데, 비혼주의자에 대한 캠페인을 기획한 후 결혼관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학우가 비혼을 추구하고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앞선 활동을 통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비혼이 ‘비혼주의’ 라는 트렌드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제 두 눈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차세대 리더육성 멘토링 활동은 저에게 더 큰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보건전문가 멘토님과의 토의를 통해 저출산이 단순한 인구 감소만의 문제가 아닌 생존 전반에 총체적으로 침투해 악영향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 한가지의 인구학적 요인이 우리 사회 전반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 깨닫게 됐고 이는 보건인구학 수학에 대한 열망에 불을 지피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계획된 인재]

궁극적으로 제 목표는 인구 문제를 개선해나가는 ‘보건 인구학자’ 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기틀을 잘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보건학을 공부함에 있어 그 기반에 대한 이해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부 분야를 가리지 않는 전 방위적 학습을 통해 여러 관점에서 보건학적 문제에 접근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다학제

적 접근을 통해 보건 사회의 흐름을 해석할 것입니다. 보건대학원 진학을 통해 보건학을 사회학, 경제학, 법학, 정치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학문적 소양 함양과 보건학적 문제에 대한 과학적 해결 능력 습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보건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들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할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보건 정책 제도들에 대한 해석능력이 중요하기에 보건정책학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특히 보건학 전공 중에 배웠던 공중보건학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정책 분석 및 평가’ 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류의 건강증진이라는 큰 목적달성을 위해 국제보건 연구까지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또한 미래의 글로벌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여러 사례를 수학해나가면서 제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현대 건강사회의 해답, 모바일 헬스케어]

인류의 기대수명도 그에 따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보건의 ‘늘어난 삶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명확히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모바일 헬스케어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효과적 대답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모바일 헬스케

어는 접근성에서 굉장한 이점을 가지며 개개인의 건강정보(영양, 신체 활동 등)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의 여러 보건인구적 문제 개선과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을 비롯한 보건복지 솔루션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인구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보건인구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보건인구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인구학에 대한 연구가 과거에 비해서 활발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연구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저는 보건인구학 연구자가 되기 위해 졸업 후 보건대학원에 진학하여 보건인구학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 후에는 풍부한 보건학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보건 문제들을 해결하며 국민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는 공신력 있는 보건인구학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진 보건인구학에 관한 별개의 학과는 존재하지 않지만, 보건학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보건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을 더해 나가다 보면 보건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삶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요즘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담배 연기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건학을 전공한 만큼 평소에 흡연으로 인해

유발되는 질병들을 공부하면서 흡연의 경각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저는 보건복지부 금연서포터즈 ‘난(non)스모킹’ 팀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성북구 보건소와 연계하여 경륜장에서 금연 상담, 각종 단계적인 주제별로 카드 뉴스를 제작하는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금연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인재]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턴, 한국장학재단 사회리더대학생멘토링,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공익인재, 도봉구 문화예술창업프로그램, 보건복지부 금연서포터즈, 절주 서포터즈 그린유닛,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교육봉사 등 다양한 방향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20대이지만 더욱 특별하고 열정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저의 힘은 적습니다. 하지만 분명한건 저는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좋은 사교육을 받아 좋은 대학에 취직하고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 물론 이 정답도 중요하고 각 개인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정해진 정답만 쫓아가느라 사회의 곳곳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청년으로서, 국민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재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큰 힘을 갖고 있는 저는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앞으로도 공익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수상]

내 꿈과 나의 이야기

김명찬

2020년 새천년 으뜸인재

현재 나는 2020년도에 제1회 전라남도 숨은인재 발굴대회에서 ‘영어교육’이라는 나의 꿈을 재능으로 삼아 선발되어 현재 지원받고 있다. 전남 스타 200인으로 선발되어 지금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나를 돌아보며 이 지원이 나의 성장 과정과 지금까지의 장래희망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적어보고자 이 에세이를 적기 시작한다.

사실 에세이 공모전에 선발되는 것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졸업까지 약 1년정도 남겨둔 나의 대학생활에 대해 돌아보고자 한다. 내가 왜 전남의 영어교사가 되고 싶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 적는다. 내가 겪어온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전라남도 및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은 한 줄기의 빛나는 동아줄과 같았다. 그 동아줄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담았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전남의 영어교사’,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슴에 새겨온 나의 교사상이다. 중학교 1학년 때, 또래 친구들보다 영어에 자신이 많았다. 매일 보던 단어시험에서 거의 항상 100점이 나왔으며, 쉬는 시간에는 친

구들보다는 학교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겼다. 이대로만 공부하면 좋았겠지만, 나는 내 영어실력에 자만했다. 어느 순간부터 단어를 외우지도 않고, 학교 영어수업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문장을 가져와 영어 선생님께 질문하며 수업을 방해했다.

그렇게 중학교 1학년 2학기를 마무리하고 2학년에 진급했다. 2학년 1학기가 시작되고 며칠 뒤 수준별 수업 분반 배정표를 전달 받았다. 당연히 A반일 것으로 생각했던 나는 예상과 다르게 B반에 배정을 받았다. 당시 나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주변 친구들의 시선에 큰 수치심을 느꼈다. 그 뒤로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 수준별 수업 첫날부터 교실 맨 뒤에 앉아 다른 책을 읽고 수업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문지방이 닳도록 방문하던 원어민 선생님실에도 전혀 찾아가지 않았다.

하루는 B반 영어선생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명찬아, 작년 영어 성적을 보니 굉장히 높았는데, 이후로 성적이 낮아졌네? 수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던데 무슨 고민이 있니?” 처음에는 자격지심이 들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선생님의 계속되는 질문에 나는 내 속마음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웃어주시며 나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셨다. 그러나 별다른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았다. 다만 수업에 한 번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만 당부해주셨다.

나는 선생님께 또 불러가기 싫어 영어수업시간 때 조금이나마

참여하는 척을 하였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른 뒤 수업시간에서의 나를 돌아켜보니 더 이상 참여하는 ‘척’이 아닌 진심으로 수업에 재밌게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샌가 내 영어점수는 회복되었고, 원어민 선생님과도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평소 수업에서 벗어나 자고 있던 친구들이 당시 B반 영어선생님의 적극적인 수업 준비를 통해 활동적으로 수업에 임하며, 서로 먼저 대답하겠다고 손드는 모습을 보며 나 또한 자극을 받고 더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루에 한 시간밖에 없던 영어수업이 기다려지며, 나와 내 친구들의 수업태도를 변화시키는 모습,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단원을 공부하며 보았던 영어로 자신의 꿈을 말하던 친구들의 모습이 나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영어’라는 언어가 교육이라는 소재와 만나 누군가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꿈을 키워주는 모습이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이후 같은 아파트, 같은동에 사시던 B반의 영어선생님과 우연히 함께 귀가할 기회가 생겼다. 그 선생님께 정말 별 뜻 없이 졸업하신 대학교를 여쭙어보았다. ‘순천대학교 영어교육과’라는 답변에 이어 나는 한 개의 질문을 더 하였다. ‘저도 거기에 가면 선생님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자 선생님께서 그럴 수 있지 않겠냐고 대답해주셨다.

‘순천대학교 영어교육과’, 지금 내가 재학 중인 학교이다. 그 말을 들은 뒤부터 10대의 나에게 순천대학교 영어교육과에서 공부하는 것이 평생의 목표였으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했다. 그 결과 서울·경기권에도 대학 진학을 고민해 수 있는 성적이었음에도 고민 없이 원서를 제출하였고 최초합격을 하였다.

대학교 1학년생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오래가지는 못했다. 1학년 2학기를 마친 뒤 이틀 뒤, 응급구조사 분으로부터 어머니께서 화상을 입으셔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 중이시니 빠르게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깜짝 놀라 택시를 타고 바로 인근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 도착하고 일반실에서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반실에서 어머니를 찾을 수 없어서 간호사분들께 여쭙어보니 상태가 심각하시어 처치실에서 소독 중이시다고 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처치실로 향했다. 그러나 처치실에 도착한 나는 매우 놀랐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온몸이 타들어 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사람이 누워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길 간절히 바랐으나, 매우 슬프게도 어머니가 맞으셨다. 어머니께서는 그저 ‘명찬이 데려다주세요’라는 말씀만 반복하셨다. 하지만 순간 정신이 든 나는 어머니께 도착했다고 말하며, 의사선생님을 붙잡고 겨우 이성을 붙잡은 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상에 어머니와 나 외의 가족은 없기 때문에 내가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후 전남에서는 어머니를 치료할 수 있다는 병원이 없다는 말을 듣고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부산에 도착한 뒤에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다. 의사선생님께서

는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기존에 천식,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기에 비슷한 사례를 보면 10명 중 6~7명은 대부분 사망한다고 하셨다. 또한, 화상 부위가 마치 고기가 익으면 하얗게 되듯이 하얗게 익은 부분이 많아 수술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다. 그러나 다행히 12월부터 다섯 차례 이상의 수술을 받으시고는 최소한의 일상생활이 가능하실 정도로 회복하시는 하셨다. 그러나 우리 집에는 수 천만 원의 병원비가 청구되었다. 다행히 병원의 사회복지팀과 연결이 되어 라디오, TV 다큐멘터리 등의 방송촬영을 통해 겨우 병원비는 변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다치시기 전에도 노동능력이 없으시다고 판정이 되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 중이었는데 이후에는 전혀 일을 하실 수 없으시고 겨우 집에 머무르시며 생활을 하고 계신다.

작년 5월부터 이 에세이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수차례에 걸쳐 상처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으시고 계시고, 현재는 부산의 병원에 다시 입원하시어 10월 말 큰 수술을 받으셨다. 이 과정에서 나는 병간호, 병원비 등에 대한 큰 부담을 느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애초에 나를 홀로 키우시며 정신력이 강하셨으며, 내 꿈을 접기를 원치 않으셨기에 나는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학생회장 활동 및 교육봉사활동(영어캠프 기획 및 운영 등)에 참여하여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하였다.

‘다양한 꿈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전남의 영어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전공원서들을 수십

권 읽고 정리하며, 중등영어임용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반영어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 학과에서 다양한 스터디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공지식만을 많이 가진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배워서 남 주는 교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다양한 비교과 활동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부모님의 사고로 인해 힘들 때 정신적으로 큰 버팀목이 되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했기에, 그리고 학기 중에 배우는 전공을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기에 강의 조교(T/A)로서 활동하거나, 사범대학 교육봉사단 영어교육과 학생대표(기초학력 미달 중학생 대상 온라인 멘토링)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내 중고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과 교수님들과 같이 교육을 통해 그리고 교육자로서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고자 일부러 교육소외계층(도서 지역, 편부모, 조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들을 찾아다니며 학과 학우들과 영어캠프를 직접 기획하여 방학마다 운영하였다. 이런 비교과 활동들을 부모님께서 사고를 당하신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참여하였다. 처음에는 대부분은 ‘그런 활동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병간호 해 드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불효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를 제일 잘 아는 것은 나였다. 당신 때문에 내 학업에 영향이 가고, 꿈을 포기하는 모습이 더 상처가 될 것이기를 알았기에 오히려 나는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앞서서 참여하였다. 그런 모습을 보신 어머니께서도 더욱 회복 의지를 가지셨고, 의사선생님들도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빠른 회복 속

도를 보인다고 말씀해주셨다. 병실에서 소독실 침대로 이동하시다
휠체어를 거치지 않고 피가 나고 피부가 찢어져도 걸어서 이동하
신 어머니의 정신력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다.

나를 응원해 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전남의 영어교사’ 라는
꿈을 이룬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그리고 미래에 만날 나의 학생
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는 것이 나의 꿈이자 바람이다.

[장려상]

진정한 공감, 성인권 변호사를 꿈꾸며

윤혁주

2021년 아릅드리 장학금

진정한 공감, 성인권 변호사를 꿈꾸며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어느 때와 다름없이 거리엔 수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쓴 채 걷고 있습니다. 다들 우산을 써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 그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비에 젖은 채 얼굴을 보입니다. 비에 맞으며 혼자 걷고 있지만 아무도 그에게 우산을 건네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이런 상황은 익숙했을지도 모릅니다. 제 손엔 우산이 있습니다. 괜한 연민의 마음에 저는 그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우산을 씌워주려고 그랬냐고요? 아니요. 저는 그냥 그 수없이 많은 우산들 속에서 혼자 걷던 그의 옆에 가서 같이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우산을 펴지 않은 채 말입니다.

진정한 공감이란 무엇일까요? 만약 그를 꼭 도와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에게 가서 비를 맞지 말라며 우산을 씌워주었을 겁니다. 물론 비를 맞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그에게도 이득이었을 수 있겠죠. 그것이 상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것은 우산을 씌워주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다른 차원의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어쩌면 그가 바라던 건 이런 진정한 공감이 아니었을까요?

최근, 저는 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인문학 강좌에서 박준영 변호

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인권 변호사에 대해 꿈을 키우고 있는 저에게 박준영 변호사님의 이야기는 특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사람은 바뀔 수 있다.” 라는 말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재심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님은 당연히 재판 과정에서 이미 상처를 술하게 받으신 피해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깊기에 그분들은 마음을 쉽게 열지도, 심지어 무료로 재심을 진행해 준다고 제안해도 재심을 하지 않겠다며 거부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변호사님은 그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돌린 건 거창하고 그럴듯한 재심이 아니라 그저 그분들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아무렇지 않은 듯 대해주었던 박준영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그 결과 박준영 변호사님은 실제로 낙동강변 2인조 강간살인사건이나 화성 연쇄 살인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분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박준영 변호사를 보면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진정한 공감은 그들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뒷받침하는 상대방과의 온전한 합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재심의 승소까지 이끌었던 박준영 변호사가 바로 이것의 좋은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을 볼 때 보다 우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이와 비를 맞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우산이 있는데도 왜 씌워주지 않고 같이 맞으며 걸어가는 거지?” 라며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저는 ‘변화’란 그런 사소한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변하려면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가 변하려면 가진 자, 능력 있는 자가 뭔가 다른, 더 높은 차원에서 약자 곁에 다가가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꼭 성공해야 합니다. 성 인권 변호사가 되어서 남들은 쉽게 갖지 못하는 시선으로 약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공감하고 싶습니다. 상처받은 채 홀로 끙끙 앓는 우리 사회의 약자 곁에 다가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한번 바꿔보고도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엄청난 노력을 겁니다. 제가 가진 능력이 바람직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그런 저의 행동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도록.

남들이 우산조차 건네지 않거나 씌워주기만 하려 할 때, 그저 같이 비를 맞아주며 걸어가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 오히려 도움을 주는 다소 역설적인 이 행동의 의미와 중요성은 백번을 역설해도 부족하지만, 지금껏 제가 보기에 이 나라의 가진 자들은 항상 우산으로 자기만 가리기 바빴습니다. 그 속에서 상처받았을 이 나라의 수많은 약자들에게 저는 기필코 가진 자가 되어서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으로서 다가갈 것입니다.

다. 그것이 비록 어린 나이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보며 키워온
저의 꿈이고, 바람이고, 사명입니다.

인재육성 장학금과 함께 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장려상]

시련 너머 나의 꿈

장 옥 순

2021년 희망나래 장학금

까마득한 기억의 저편, 초등 6년 동안 매년 월사금을 못 내어 회 초리로 손바닥을 맞고 복도에 나가 손들고 있던 시절. 보리쌀이 나오면 보리쌀을 가져 다 주고 쌀이 나오면 쌀을 월사금으로 가져다 주면서 간신히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한 반에 60명 정도였으니 선생님도 참 힘드셨을 것이다.

나는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났고 내 기억 속에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우리를 쥐 잡듯 하셨다. 살림을 다 부수고 식구들을 때리고 괴로워하시다 농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나셨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할 때쯤 가장이었던 큰 오빠는 바로 위 오빠가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는데 동생을 들썩이나 학교에 보낼 형편이 못 된다고 중학교에 진학을 못 하게 했다. 나는 정말 학교에 가고 싶었다. 반에서 10명 정도 중학교 진학을 못했는데 내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이다. 엄마는 빠르게 공장을 알아보고 졸업하자마자 이불 보따리 싸서 경산 섬유공장으로 보냈다. 야간 일주일, 주간 일주일 열심히 일했고 월급 받을 때면 엄마가 와서 가져가셨다. 쉬는 날 집에 와 친구들을 만나면 모두 학교얘기 뿐이었다. 가난이 무엇인지 몰랐고 큰오빠도 엄마도 밋기만 했던 내 어린시절의 모습이 었다.

가난한 내 수준의 남자를 만나 자식들 키우며 장사하면서 살림을 꾸려나갔다. 열심히 돈을 모으면 돈에 미쳤다고, 열심히 일하면 일에 미쳤다고 나를 비난하면서 바람피우고 사치하는 희망 없는 생활. 삶을 포기할 수 없어 남편과 결별을 했다. 배운 것 없으니 취직은 생각도 못 하고 늘 장사를 했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자식들을 버리고 타지에 가 식당일을 하다가 롯데마트 코너에 취직하게 됐다. 그때는 이력서 등본만 제출하면 되어서 고졸이라고 쓰면서 손이 덜덜 떨렸다. 정직원이 되고 싶었지만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서 협력업체 직원만 했고 혜택이 별로 없었다. 협력업체 직원이 되어 전국을 떠돌다 해남에 정착했다.

우연히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를 알게 되어 만학도가 되었을 때 나는 달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장을 받았을 때 방송국에 가서 마이크라도 잡고 전국민에게 자랑하고 싶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나처럼 배우고 싶었지만 배울 수 없었던 이들이 아직도 부끄러움으로 망설이는 것이 안타까워 학교 홍보대사가 되어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만학도의 배움의 길에서 영어도 배우고 한문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어떤 이들은 부끄러워 감추려고 하지만 만학의 길은 자랑스러운 것이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상황에 맞춰 당당하게 공부하는 것은 신이 내게 맡겨주신 나의 길이기 때문이다. 해남우수영 시장에서 그릇 장사를 하고 있다. 장날이 아닌 날에는 오전에 공부를 하러 학교에 가지만 4일과 9일 장날이 되면, 낮에는 장에서 물건을 팔고 야간에 공부하러 학교에 간다.

슬프고 괴로웠던 내 삶에 감사가 찾아왔다. 그토록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니 힘들어도 삶에 활기가 생겼다. 내게 시간은 곧 돈이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배우기 위해 쓸 수밖에 없었다. 장사를 하면서 공부하자니 몸은 고되다. 하지만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기쁨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오랫동안 꿈꿔온 사회복지학사가 되어 주위의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돕고 싶다.

현재 해남 문내면에서 부녀회장을 하고 있는데, 꼼꼼하게 챙긴다고 하면서도 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생겨 안타깝다. 사회복지에 관한 법을 더 배워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잘 도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자신감이 없었고 학력이 없어서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영어, 한문, 컴퓨터 등을 배우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고,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도 시도해보고 싶다. 그리고 마을 문화해설사 자격증도 도전해 보고 싶다.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현재의 고난도 이겨낼 힘이 생겼다. 장사가 잘 안 되는 날도 이제는 우울해 하지 않는다. 그릇 장사를 접을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는 나를 생각만 해도 기쁨이 샘솟는다. ‘인재육성 장학금’은 나의 꿈에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심어 주었다.

[장려상]

열심히 살아온 나, 고생했다

정재훈

2021년 희망나래 장학금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고생했다’ 입니다. 지금껏 티는 내지 않았지만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없다고 놀림 받기도 하고 아버지가 없는 게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머니와 조부모님한테 솔직히 말하지 못하고 떼를 쓴 적도 많았습니다. 좋지 않는 형편으로 인해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어머니, 조부모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한 번씩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점점 아버지가 없는 사실을 숨기게 되며 제 마음도 점점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척 괜찮은 척을 하다 보니 슬퍼도 울지 않고 항상 괜찮다 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집에 가면 어머니는 일을 하기 위해 나가셨고, 누나들 또한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막내라고 어리다고 혼자서 가만있을 수 없다고 느껴 저도 중학교 때부터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편의점,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힘들었지만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15살부터 25살 까지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에세이 주제를 듣고 많은 생각에 잠

졌습니다.

최근에 2013년도 돌아가신 아버지 빚을 갚으라는 판결문이 왔습니다.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8년이 지난 상태에서 5살 때 집을 나가 돌아가실 때 한번 본 아버지 빚을 갚으라니 많이 혼란스러웠지만 이 빚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8년이 지나 한정승인을 진행하기 위해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정보를 검색해서 알아내고 각종 서류를 떼며 아버지의 빚이 있는지 몰랐다는 근거와 증거를 찾으며 많은 적지 않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 빚이라도 당연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바쁘게 뛰어다녔는데 누나들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여 혼자 진행하던 중 재판에 오라는 판결문을 받고 심각성을 느껴 저를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매형이 저에게 혼자 일 처리하느라 ‘고생했다’ 고 하였습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텐데 그 당시에 저는 시험, 자격증, 졸업작품 등을 준비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시간을 겨우 내면 일을 처리해서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고생했다’ 라는 말을 누구에게 듣고 싶은것도 아니었고 당연한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생했다’ 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마 저에게 당연했던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고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동안 고생했던게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말 해도 부끄럽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해진 것인지 주변에 그 누구도 저에게 고생했다. 라는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게 당연했던 서러움, 창피함, 고생 등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저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제 감정을 조금이라도 더 솔직히 말하려 합니다. 매형이 그저 뻔한 ‘고생했다’ 한마디를 통해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고생했다’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받은 장학금은 나에게 ‘고생했다’ 라고 말해주는 위로이자 격려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려상]

좋은 상담사가 되는 길

이 령 원

2021년 희망나래 장학금

좋은 상담사가 되는 길

누군가 나에게 꿈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상담사가 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답할 것이다. 덧붙여 그냥 상담사가 아닌 ‘좋은’ 상담사가 되는 것이라고 꼭 말할 것이다. 아마 상담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상담사가 되기를 꿈꿀 것이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좋은 상담사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좋은 상담사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내가 직접 겪고 나서 생각하게 된 좋은 상담사란 믿음을 줄 수 있고 진심이 느껴지는 진솔한 상담사라고 생각한다.

불안장애와 대인기피증으로 큰 슬럼프를 겪었던 고3 끝날 무렵,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지 못할 정도로 힘든 시기가 있었다. 사람을 좋아하던 나는 어느샌가 사람을 마주하는 게 두려워졌다.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게 그렇게 두려웠던 적은 처음이었다. 사람과 마주할 때면 심장은 미칠 듯이 뛰었고 머리는 새하얗졌으며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몸은 그대로 굳어있었다. 처음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잠시 그런 걸 거야’ ‘곧 괜찮아지겠지’ 하고 나의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게 큰 실수였다. 결국엔 가장 가까웠던 친구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어 큰 충격에 빠졌다. 나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기에 무척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매일같이 나 자신을 자책하고 숨죽여 울며 방안에 갇혀 마치 시체처럼 지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줬던 것은 보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만나게 되었던 상담 선생님이었다. 상담을 시작하고 처음 한 달 가까이 나는 말문을 열지 않았다. 그런데도 상담 선생님은 보채거나 답답해하지 않으셨으며 끝까지 기다려 주셨고 나는 그제야 마음을 열고 서서히 털어놓기 시작했다. 상담 선생님은 나를 항상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해주셨으며 선생님의 경험에 빚대어 진솔하게 공감해 해주셨다. 어떻게 보면 생판 모르는 남이지만 선생님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가족에게조차 말 못 할 일들까지 털어놓을 정도로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힘들었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경험을 통해 좋은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담자 스스로가 먼저 마음을 열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이후에는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진솔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서로 간의 믿음이 없다면 상담은 시작조차 될 수 없었을 것이다. 훗날 나도 나에게 손길을 내밀어주었던 상담 선생님처럼 좋은 상담사가 되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 특히 과거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는 청소년상담사가 되고 싶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처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상담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청소년기의 건강한 정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과 작고 사

소할지라도 어찌면 청소년기에 받는 영향은 크게는 그 한사람의 미래와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지금 청소년들의 미래를 이끌어 가고 바꿔 나갈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기에 현재 어떤 생각과 정서를 가지고 성장하느냐가, 그리고 옆에서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잡아 줄 버팀목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솔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청소년상담사가 되어, 혼란스러운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아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올바르게 씩씩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더 나아가 아이들에게 나와 같은 상담사의 꿈을 심어주어 좋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장려상]

작지만 큰 나비효과

허정욱

2021년 특별지정 장학금

개인사업자시던 아버지는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계셨는데 ‘코로나 19’ 라는 악재까지 겹쳐 가정 형편이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나마 ‘코로나 19’ 초기에는 내가 군복무를 하고 있어 부모님께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동생만 부양하면 되었지만 내가 군 전역 후 복학을 하면서 취업 준비 및 공부를 위해 서울로 상경하게 되면서 부모님의 부담은 더해지게 되었다. 내가 우리 가게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학업과 함께 각종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학업에 집중도가 분산되었고 금전적 이유로 사람들과 만나거나 교류를 하는 빈도수도 줄어들었다. 그러다 보니 여유도 없어지고 위축된 상태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다.

그러던 와중 부모님의 소개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금을 알게 되었다. 이 장학금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봐도, 위축된 내 자신을 봐도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이었고 달성해야 하는 나의 새로운 목표가 되어 나를 동기부여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마냥 쉽지 않지만 앓았지만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도 학업에 더욱 집중을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학점과 단순 학점으로 치환되지 못하는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나의 목표였던 장학금 수령에도 성공하였다. 가장 높은 수준의 장학금은 아니었기에 다소 아쉬웠지만, 이 아쉬움은 또 다시 나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고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어 새로운 목표를 위해 이번 학기도 정진하고 있다. 또한, 조금의 경제적인 여유는 학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고 학생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게 해주어서 장학금이라는 것은 나의 자존감을 끌어 올려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 전부에 영향을 끼쳐 경제난 등으로 위축되었던 내 모습이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다. 주변과의 교류도 활발해져 선후배 친구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도전과 꿈에 대해 공유하며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있을 취업과 목표달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150만원의 장학금은 일회성이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전부 책임져줄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 그렇지만 내게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 주었고 그 이정표를 따라가는 과정을 통해 달라지지 못했을 나에게 변화를 이끌어주었다. 소박하지만 새로운 목표가 나를 동기부여 해주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는 성장할 수 있었다. 이 성장은 내가 새롭고 더 큰 목표를 위한 거름이 될 것이고 계속 선순환을 창출해 줄 것이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모여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내가 어렵고 필요할 때 한 번의 장학금은 내게 날갯짓을 시작하게 하였고 이는 내 세상에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를 선물하였다.

[장려상]

타인을 도와주고 이롭게 하는 자외선 차단제 같은 나

김 주 향

2021년 희망나래 장학금

저를 정의할 수 있는 무언가는 사실 무수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황에 따라서 흐르는 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사군자의 매난국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저를 잘 표현하는 사물은 ‘자외선 차단제’ 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외선 차단제는 뜨거운 자외선으로부터 사람의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정말 꼼꼼히 바르는가 하면 자외선 차단제의 끈적이는 제형이나 답답함 때문에 바르지 않기도 합니다. 또는 그 자체의 효능을 믿지 않기도 하고요.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는 많은 피부 의학적 종사자들의 꼭 발라야 한다고 단언하는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물론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를 결점 없이 완벽하게 보호하고 외부의 자외선에서 해방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는 모두가 인정하고 단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의 주변 지인분들이나 친구들은 제가 있으므로 행복하고 꼭 필요하다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제 주변 분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먼저 저는 다른 이들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자외선 차단제가 광고는 정말 화려하게 했는데 막상 효과는 없다면 그 누구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외선 차단제를 믿고 구매해 준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같이 저는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맡기고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은 친구를 배신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역할은 단순히 얼굴을 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닌 자외선에 의해 발생하는 기미, 주근깨 완화 및 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들에게는 언제든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며, 주변 어른분들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 동생들에게는 닳고 싶은 선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많은 분이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자외선 차단제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들 아시는 선크림, 휴대하기 간편한 선 스틱, 어린아이들을 위한 선 로션, 무거운 걸 싫어하는 분들을 위한 선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의 일을 하지 않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전공하고 싶은 분야인

마케팅 관련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중요시하기에 광주광역시 청소년 활동 정보단에서도 활동하고 다른 봉사활동을 하는 등 여러 현장 경험을 쌓으려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일이 있다면 끝까지 해야 하는 성격 때문에 때로는 너무 힘들고 워커홀릭 기질도 있지만 그만큼 운동도 해가고 혼자만의 시간도 꼭 가지는 등 저의 자기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표현하는 사물을 저는 자외선 차단제로 선정했습니다. 모든 일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노력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처럼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마지막으로 능력있는 사람. 아직 달려가야 할 길은 너무 멀고 힘들겠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오늘 하루 행복하게 지내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외선 차단제 같은 사람입니다.

[장려상]

따뜻함을 심어주는 정신과 의사가 되자

정 현 수

2021년 아람드리 장학금

따뜻함을 심어주는 정신과 의사가 되자

중학교 2학년 즈음 환청, 이명, 불면증으로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신과는 억압적인 분위기일 것이라는 기존의 생각과 달리 편안한 분위기와 저의 증상과 정신적 고충에 깊이 있는 공감을 해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한 달가량의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의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론 환자를 사람으로서 대우하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따뜻한 정신과 의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정신과를 희망하게 된 과정엔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 정혜신의 ‘당신이 옳다’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책은 심리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교정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만성적 기근에 시달리며 우울이 보편화된 현대사회를 보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당신이 옳다는 확인, 즉 공감의 필요하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지인들의 고민을 들을 때 판단과 해결책을 제시해 왔던 저에게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마음을 궁금해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치유다.’는 구절은 사고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또한 타인을 감싸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고 필요하

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낮았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가지게 된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생각 또한 꿈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감성적 동물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제가 최근 목격했던 갈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친구들이 서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3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저는 둘 사이에 깊은 오해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 제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이성적 판단을 통한 상황 이해가 아닌 서로의 감정을 이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진행되진 않았지만 계속된 시도로 상대의 감정과 사이에 개입된 오해를 바로 이해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에서 저는 ‘당신이 옳다’ 에서 제시된 공감을 확장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성엔 감성이 뒤섞여있고 타인과 자신의 이성, 감성이 부딪힐 때에 갈등이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성적 판단에 앞서 감성에 대한 이해의 선행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가며 때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존재들이 떠나갔습니다. 처음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엔 긴 시간 동안 방향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도 했지만 그런 경험이 반복되고 쌓이면서 이별 또한 새로운 만남을 위한 연장선이라는 점, 즉 이별이 있기에 만남 또한 빛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 대해

깊은 생각은 저를 정신과 의사라는 꿈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저는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 및 지원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는 제가 수년간 꾸준히 진행해온 ‘취약계층 정서지원 및 양곡배달’ 봉사활동과 연결됩니다. 단순한 목적으로 시작했던 활동이었지만 반복되는 봉사활동 속에서 방송과 기사를 통해서만 접했던 사회적 취약계층의 현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행한 눈길을 보여 주시는 분, 찌든 담배 연기로 악취를 풍기는 분, 어지럽게 흐트러진 방안의 모습 등은 보기에 안타까웠습니다. 주변은 CCTV도 찾아보기 힘든 한눈에 봐도 취약한 치안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들의 열악한 상황을 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는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작은 애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카드에 손편지로 힘을 주는 문구를 적어 물품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안녕하세요’ 라는 형식적 어투보단 ‘사랑합니다’ 는 인사를 반복했습니다. 63세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사시는 할머니께서 저를 당신의 손주 같다고 꼬옥 안아 주실 때 정말 가슴이 찡하였습니다. 이처럼 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감을 하고 있으며 제가 그들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감사함’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성공을 성취했을

때에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여기고 우월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로 인해 베풀기보단 개인적 삶의 여유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물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제가 성공하는 길까지 이끌어준 부모님, 학교, 친구들 그리고 세계 장학금의 기회를 준 전라남도과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모든 분야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이런 삶의 자세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따뜻함을 심어주는 정신과 의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려상]

11월의 장미

강 리

2018년 예능특기자 장학금

2019년 11월 말, 겨울의 손을 잡아버린 입김 나오는 추운 날, 길을 걷다 외롭게 핀 장미 한 송이를 보았어. 분명 지금 필 때가 아닌데 많이 늦은 듯 보였지. 맑은 날씨와 어울리는 그대들은 흐린 날씨임에도 예쁘게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고 오히려 흐린 날씨 덕에 아픈 가시는 가려지고 짙한 붉은빛만 돌더라. 때가 늦어도 아름다움은 여전하더라고. 그냥 남들이 피어날 때와 다를 뿐이었고 오히려 늦은 지금이 더 그들에게는 어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오늘 하루도 힘들게 보낸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대들 덕에 한 번이라도 미소 지으며 길을 마저 떠날 수 있었지. 나도 이 추운 날 핀 장미처럼 한번 견뎌보려고, 5월에 피는 장미가 첫 눈을 맞는다니.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니!

가장 예쁜 나이라고 생각했던 23살. 대학교 4학년. 나의 일기장에 쓰여 있는 일기 한 편. 4학년쯤 되면 나도 멋진 젊은 지성인이 되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실제로 마주한 막 학기의 나는 진로에 갈팡질팡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음악을 너무 사랑했고 잘했던 나는 자연스럽게 대학까지의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대학 끝에 마주한 앞으로의 멀고 먼, 내가 선택한 길인 음악을 어떻게 펼쳐야 할지 막막했다. 정해진 것도 없이 그냥 나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만 하는 일개미 같았다.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나는 친구의 질문에 나는 말 대신 침묵으로 답했다. 뒤돌아 생각해 보니 나는 목적지도 없이 그저 제자리만을 열심히 도는 물레바퀴와 같았다. 세상은 정신없이 앞으로 하나 둘 부지런하게 흘러가는데 나만 그 자리에 있는 거 같아 속상했다. 해결의 열쇠가 없다는 것이 야속했다. 그 열쇠가 정작 맞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더욱 더 굳게 잡고 있는 지도 모른 채 말이다.

졸업을 앞두고 전 여름방학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나는 일단 실력이 한없이 부족하다고 여겼기에 공부가가 더 하고 싶었다. 이왕 공부하는 김에 음악의 본 고장인 독일로 유학을 가고 싶었다. 하지만 유학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지라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단지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 부분을 현실로 일깨워 준 것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받은 장학금이였다. 누구나 알듯이 유학을 고민하는 많은 큰 이유 중 하나는 자금일 것이다. 타국에서 생활비뿐만 아니라 비싼 월세와 보험 등을 비롯해 많은 돈이 든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난 그때 깨달았다. 부딪히는 어려움에 숨을 곳만 찾았던 나에게 도피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깨트릴 무언가 필요했다는 것을. 그 무언가는 아마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을. 실패하든 성공하든 깨트릴 무언가를 내 손에 쥐었다는 것에 용감하고 나는 아직 젊다는 것에 용기를 가져보기로 했다.

꿈 하나를 위해 장학금으로 받은 돈으로 막무가내로 비행기 표

를 끊었다. 그때부터였다. 내 인생의 길에 꽃으로만 가득했던 게. 무작정 떠난 독일의 삶은 마치 행복의 정의를 내린다면 이때를 말할 것이다. 새로운 사람을 마주하는 것도, 내가 지금까지 배우지 못했던 독일만의 스타일대로 음악을 배우는 것도 비록 낯설지만 기분은 좋았다. 내게 첼로라는 악기를 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냐는 질문에 단언컨대 이 장면이라고 말하고 싶다. 내가 꿈꿔왔던 어마어마한 스테인드글라스 너머 푸른 하늘이 보이는 교회에서 울리는 나의 소리들이 맞물려 아름다운 선율이 천장 끝까지 타고 내려오는 그 느낌을 난 아직 잊을 수가 없다. 연주하면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내가 음악 하는 이유가 그날 또다시 확실해졌다. 물론 힘든 적도 많았다. 항상 가족은 그리움의 대상이었고 해가 뜨지 않는 독일의 겨울은 정말 힘들었다. 햇볕이 그렇게나 소중한 존재인지 처음 느꼈다. 또한, 학업을 준비하고 있던 나는 생각보다 순탄치 않음을 느꼈다. 그래도 같은 패배라도 더 나은 패배가 있는 것처럼 어떤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고 곱씹어 나아가고 있었다. 어찌면 떠오르는 태양보다 저기는 태양이 아름다울 수 있으니까 고개 숙여도 괜찮다는 위로와 함께. 현재의 나는 독일의 음악 속에 여전히 빠져있는 중이다.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석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시험의 장벽이 막막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난 괜찮다. 난 그저 음악을 함으로써 행복하면 되니까.

지금의 나는 25살. 대학교 일학년 때의 내가 바라본 25살의 나는 멋진 직장인이 되어있을 것 같았지만, 직장인은 무슨, 백수인

나지만 그때의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직장인보다 더 멋진 백수라고, 백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끝내 나는 많이 성장했다고 또 나는 어떻게 얼마나 성장해나갈지 하루하루가 기대된다고. 멋진 풍경이 담긴 퍼즐을 하나둘씩 끼워 맞춰가면서 그 안에 담긴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분명 나는 아름다울 것을 알기에 성장하는 나의 재미를 느끼며 살고 싶다. 독일은 이제 영하권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해님은 거의 볼 수 없는 계절로 들어왔다. 춥지만 내겐 여전히 따뜻하다. 크리스마스 마켓 준비로 거리는 점점 화려해지고 사람들은 더욱 설레한다. 다가올 연말과 앞으로 시작될 새로운 2022년이 기대가 되는 겨울이다. 아, 유난히 따뜻한 겨울이다.

[장려상]

가족들과 함께 먹는 소중한 밥 한 끼

김예원

2021년 희망나래 장학금

가족들과 함께 먹는 소중한 밥 한 끼

저의 꿈이자 저의 바람은 아빠와 여동생과 그니까 피를 나눈 셋이서만 하루 세 끼 식사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세 끼 모두 물에 밥 말아서 김치 얹어서 먹어야 하더라도 셋이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 먹고 싶습니다. 목포시에서 셋이서 살 때 아버지 퇴근 시간까지 자지 않고 기다리다가 도어락 열리는 소리에 동생과 앞다투어 현관으로 뛰쳐나가 일에 지친 아버지를 향해 초롱초롱하게 쳐다보면 아버지께서 웃으며 시켜주시던 짜장면 한 그릇이 너무 그립습니다. 화면이 작고 앞뒤가 두꺼운 티비로 개그 프로그램을 보며 신나게 먹던, 학교에서 있던 일로 자랑을 엄청 하던 그 따뜻했던 시간이 너무 그립습니다. 짜장면을 먹은 그 다음날 제가 정말 싫어했던 저의 퉁퉁 부은 얼굴을 이젠 너무 만져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와는 연락도 잘되지 않아 끼니는 잘 챙기면서 일을 하시고 계신 건지 걱정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수술을 하셔서 눈 건강도 심하게 안 좋아지신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술, 담배로 전전긍긍하고 계신 건 아닌지 상비약은 제때 챙겨 드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끼니를 해결하시는지 궁금할 때가 많지만 가끔 연락이 닿은 아버지는 “힘들어 죽겠지만 동생이랑 함께 잘하고 있으라”

는 말밖에 하지 않으십니다. “큰딸을 믿고 있다!” 는 말과 함께. 다른 이야기를 하다 괜히 감정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이젠 서로 지쳐버린 상태이지만, 아버지와 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건 분명합니다. 너무 보고 싶고, 이름 석 자 들으면 눈물이 나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여동생과는 가까이에서 살고 있지만 평일에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느라 주말에만 간신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룹홈, 새로운 가족의 단체 문자방에서 간간히 올라오는 동생의 활동사진을 보며 ‘잘 있구냐’ 짐작하고만 맙니다. 평일에 지칠 대로 지친 제가 주말이 되어 집에 가더라도 자거나 톡톡덜 뿐 동생과 그 흔한 애정 표현으로 끌어안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적 웃으며 장난치던 건 온데간데 없고 이젠 서로에게 예민해져가고 있습니다. 사춘기인 동생을 혼자 두자니 마음 한 구석이 깨진 독과 같습니다. 전 이렇게 저와 피를 나누는 가족들이 아침에 뭘 먹었는지, 점심엔 뭘 먹었는지, 저녁엔 뭘 먹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던데, 다들 밥심으로 힘들고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잘 견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던데, 다들 희소식대로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나름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고등학생인데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공부도 꾸준히 하면서 가족들이 하루 세 끼 제때 챙겨먹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끔 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 가족들이 좋아하는 밥

반찬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과의 식사, 너무 사소한 것인데 하지 못함에 너무 서럽습니다. 하루빨리 경제적인 능력을 키워서 피를 나눈 가족과 함께 살아 밥 한 끼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꿈의 크기를 키워보자면 지금까지의 제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께 밥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꿈이자, 바람입니다.

[장려상]

DEAR. MOM

박 주 향

2021년 힘내라! 희망전남 장학금

가장 많이 한 말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갓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는 우리 가족의 경제적 수준을 잘 알지 못한 터였다. 시간이 지나고 23살의 나는 현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우리 집 경제 사정이 남들에 비해 어렵다는 걸 느꼈다. 국민과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은 어릴 적부터 나의 간절한 꿈이자 미래였다. 대학을 진학하면서 그 꿈은 더욱 선명해졌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항상 당차게 말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꿈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 ‘배움에 돈을 아끼지 말라’라는 말이 있지만,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었다. 해양경찰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학원과 온라인 강의를 알아봤을 때 솔직하게 학원을 통해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고 싶었지만, 무엇보다 부모님께 경제적 부담을 드리기를 싫어 많은 고민을 했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은 탓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가엽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때마다 엄마는 항상 “못 해준 게 많아 미안하다...”고 말하며 어떻게든 가르칠 테니 비용은 신경 쓰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라며 나를 안심시키고 북돋아 주셨다.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며 때로는 엄마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면서까지 후회하는 일을 반복했다.

엄마는 비용적인 문제로 망설이는 나를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과 지원금을 항상 검색하며 먼저 찾아 나섰고, 저번 <힘내라! 희망 장학금> 또한 엄마를 통해 알게 되어 신청할 수 있었다. 장학금은 나의 학업과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며 공부에 집중할 기회를 주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어두웠던 나의 대학 생활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셈이었다. 가난함에 상처받고, 배움에 망설이는 나에게 엄마는 사실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 다섯 식구를 위해 희생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라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엄마의 사랑과 경제적 지원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당당하게 멋진 결과로 보답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공부로 성공하기 힘들다는 편견을 깨서 내 가치를 보여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엄마, 내 엄마여서 미안하고 고마워. 앞으로는 엄마가 나의 엄마여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랑해.”

꿈꾸는



청춘들의

성장 에세이



길을찾다

| chapter. 2 |

- [입선]** 가족처럼 가치를 더욱 빛내는 사람을 꿈꾸다
- 김예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입선]** 청춘도 방향도 두렵지 않아 - 김초원 (광주대학교)
- [입선]** 기억될 사람이었음을 바라며 - 서유진 (법성고등학교)
- [입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 오신행 (목포대학교)
- [입선]** 직업적인 꿈, 가치관으로서의 꿈, 목표로서의 꿈
- 윤서연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
- [입선]** 실패가 아닌 또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기회
- 서태현 (백제고등학교)
- [입선]** 세계적인 골프선수 '이 담' - 이담 (해남중학교)
- [입선]** 내 발자취 - 권영윤 (문향고등학교)
- [입선]** 오늘도 달리는 아이 - 부민지 (삼계고등학교)
- [입선]** 천천히 서두르면서! - 고은영 (목포제일정보고등학교)

※ 장학금 수혜 당시 소속 학교명 기재



[입선]

가족처럼 가치를 더욱 빛내는 사람을 꿈꾸다

김예주

2021년 희망나래 장학금

저는 제 가치를 가족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족은 아직 아무 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가족 본연 그 자체입니다. 저도 아직 사회에 발을 들일 준비를 하는 사회초년생으로서 가족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가족 공예는 먼저 자료를 찾아보며 무엇을 만들지 결정을 합니다. 그 후 패턴을 만들어 패턴대로 가족 재단을 하고 가족을 토코놀로 정리 한 후 가족에 바느질 선을 그어 그리프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가족에 바느질 할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바느질을 하고 마지막으로 가족을 정리해주면 완성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자료를 찾아보며 결정하는 과정이 청소년기 과정이라고 느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여러 가지를 배우며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으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족으로 무엇을 만들지 자료를 찾아보며 결정하는 모습이 청소년기의 과정이라고 느꼈습니다.

제 청소년기는 미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술을 하며 행복함과 뿌듯함을 느꼈고 미술선생님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된 저는 패턴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가족의 패턴을 만드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패

턴이 어긋나며 만드는 과정에서 맞지 않는 곳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꿈을 위해 패튼을 만드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술 선생님이 되려는 목표를 가진 현재의 저는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을 결정해야 하는 이 과정을 신중히 결정할 것입니다.

이다음은 미래의 과정, 가죽의 재단부터 마지막 완성의 단계입니다. 가죽은 재단을 하는 과정부터 뚫는 과정, 바느질을 하는 과정까지 모든 면에서 신중을 가하고 꼼꼼히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멍을 잘못 뚫거나 바느질을 하다가 실이 꼬이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갑자기 생겨날 수 있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멋진 공예품을 완성할 것입니다. 저도 공예품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처럼 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저도 가죽과 같이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꿈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내가 이꿈을 이룰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실패가 있을 테지만 그 고난을 이기고 나아간다면 저는 더욱 단단해지고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과정 끝에는 멋진 완성작이 된 꿈을 이룬 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죽은 완성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술 작품을 완성해 놓고 방치하면 작품이 점점 망가지는 것처럼 가죽도 완성이 된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 꿈도 이루었고 해서 맘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망가지지 않도록 관

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끝에 저는 꿈을 이룬 멋진 사람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제 가치를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가족으로 공예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처럼 제 가치를 찾고 그것을 활용하며 제 꿈을 향해 나아가 더 나은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용기를 갖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제 가치는 아직 가족 본연에 불과하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고 그 가운데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달려가며 제 가치를 더욱 빛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즐거움도 잠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 주객이 전도되어 학과 공부가 대단치 않게 여겨졌고, 낯선 사람과 협업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도 커졌다. 학교에서나 대외활동에서나 사람들은 나와는 너무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듯 보여 거리감이 느껴졌다. 무엇보다 취업만을 생각하고 선택한 대학과 학과에 대한 확신이 없어졌다. 등록금 부담에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다짐

그러던 차에 진흥원에서 지급하는 전남학숙 장학금에 대해 알게 되었다. 나는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다. 아르바이트를 할 바엔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아보자. 각종 행사의 열기도 시들해지던 5월, 장학금을 받으려면 학과 성적이 좋아야했기에 나는 수업을 열심히 듣기 시작했다. 벼락치기가 효과가 있었던지 성적이 올랐고, 결국 1학년 2학기 때부터 장학금 수혜를 받았다. 머리 아픈 생각을 잠시 접어 두고, 장학금을 꾸준히 받고 싶은 욕심이 생겨 학업에 충실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 아닐까.

지속적인 노력 덕에 학과 성적은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왜 학교를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은 해결되지 않았다. 학교를 다닐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다. 그러다 교내 근로장학생 권유를 받게 되어 장애 학생 도우미를 시작했다. 장애 학생에 대해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편견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해 보자는 도전정신이 앞서 용기를 냈다.

장애인도 결국 깐부잖아!

2년간의 근로장학생 활동은 내가 타율적인 대학생살을 벗어나, 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깨닫는 전환점이 되었다. 장애인들도 일부 신체적 불편함이 있을 뿐 우리와 똑같이 소통하고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당연한 이치를 직접 경험하며 배운 계기였다. 내가 맡은 일은 뇌병변 장애가 있는 학생과 동행하며 이동 보조, 수업 필기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장애 학생을 돕는 일은 쉽지 않았다. 주의의 불편한 시선을 한 몸에 받은 적도 있었고 한여름에 킁킁대며 휠체어를 옮기기도 했다. 그래도 대학생살을 함께하며 밥도 같이 먹는 동안 애정이 쌓여 갔다. 어느 새 친해져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장애인들이 생활 중 불편함을 느낄 만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휠체어 이동통로가 없는 건물이나 계단 사이의 턱이 높다거나 하는 문제점이 도처에 있었다. 대학본부에 문의했으나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던 중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굳은 의지가 생기는 경험을 했다. 언니와 하굣길에도 동행하고 했는데, 수업이 늦게 끝날 때는 퇴근시간대와 겹치는 경우도 있었다. 승객이 많았던 저상버스에 언니를 태우는 과정에서 버스 기사님이 우리에게 사람 많은 시간에 왜 돌아다니느냐고 다그치는 말씀을 하셨고,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누군가 드라마처럼 정의감에 불타올라 박차고 나가 기사님께 면박을 주는 장면은 없었다. 이를 계기로 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나를 키운 건 팔 할이 장학금

근로장학금으로 버는 돈과 학숙 장학금으로 한 학기 용돈 삼아 대학생살을 이어 나갔다. 그러면서 꿈이 생겼다. 바로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는 것이었다. 공무원이 되면 사람들에게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도 개선시키고, 그들이 보다 쉽게 이동하며 남들과 같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장학금을 모은 돈으로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고 수험 공부를 시작했다. 부모님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나는 4학년 1학기까지 매 학기 받은 장학금으로 수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2년간의 노력 끝에 시험에 합격하여 지금은 영광군 흥농읍사무소 주민복지팀에서 1년 차 새내기 공무원으로서 힘을 보태고 있다. 장애인 업무는 최근에 배우기 시작하여 어려운 점이 많지만, 출장을 다니며 관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꿈에 설레기도 한다. 장학금이 없었다면 학교생활에 애정을 갖고 충실히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대학생살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교만했을지, 꿈을 이룬 지금의 생활도 없었을지 모른다. 방황하던 새내기 대학생인 나에게 전남학숙 장학금은 내 진로를 밝혀 준 내 비게이션이며 지금의 나를 키운 건 팔 할이 장학금이었다.

[입선]

기억될 사람이었음을 바라며

서 유 진

2014년 예능특기자 · 2016년 복지 장학금

기억될 사람이었음을 바라며

저는 14년, 16년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받은 현재 취업 준비생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겪은 현실은 마냥 공부만 하고 열심히 학교 규율을 지키면 됐던 환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인정받던 학생 때와 달리 현실은 최고가 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저에게 넘지 못할 벽을 마주하게 하면서 ‘인정받기란 참 어려운 것이다.’라는 상처를 남겨주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서게도 했습니다. 숭한 노력 속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한 경험 쌓기라는 아무도 모르는 내면의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성인이 된 후 학생 때는 몰랐던 금전적인 부분의 중요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적금을 깰 때 놀란 토끼 눈을 뜨던 은행 직원분의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열심히 직업 체험 활동을 하러 나섭니다. 지금까지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고 정말 잘한 일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 현재의 저는 저에게 맞는 적성을 찾았습니다. 남들 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할 때 년 뭐하냐는 말은 제 귀에 섬섬잡게 들리던 단골 멘트였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아 조금은 섬섬잡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제가 찾은 적성을 살리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을 쌓아 내년엔 더 큰 곳을 찾

아 향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인 저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설레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취업 준비생으로써 관련 일자리를 검색해보던 중 에세이 공모전을 발견하고 작성해봅니다. 그때의 장학증서를 바라보며 뿌듯해하던 중 장학금을 어떻게 사용했지 라는 의문으로 고심하던 중 “생활비로 썼지” 라는 부모님의 대답이 허무하면서도 성인이 된 저에게 납득이 되는 이유였습니다. 화려함 속에 감춰진 진실 같았습니다. “그렇게 썼으니까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거야” 라는 부모님의 말씀은 저를 수긍하게 만들었습니다. 학생 때 가난했던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부였고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공부였습니다. 그때의 제가 할 수 있는 본분을 지켰고 그로 인해 변화를 얻었습니다. 이 때의 경험이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시겠지만 장학금을 받으면서 내가 보탬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싶었고 곧 성취감으로 이어졌으며 자존감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어떤 것이라고 해내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제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열정이 생겼습니다.

쓰디 쓴 첫 사회생활의 아픔으로 잠시 자존감이 높은 제 자신과 열정을 잠재웠지만 금방 다시 끄집어내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의 발판은 학생 때의 그 성취감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학증서를 살펴보면서 옛 기억을 떠올리는 저는 고된 취업 준비생이라고 한들 스트레스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히 노력한 흔적이 지금의 나를 미소 짓게 하고 증거가 되어 나를 표현하게 하고 곧 기억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 때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한 저에게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앞으로를 위해 남들이 어떤 말을 해도 노력한 제 모습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를 보낼지 생각하며 즐겁고 설레는 감정을 요즘 같은 시기 멀리 전파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딱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글을 작성하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많은 일들 속 장학금을 받으면서부터 성장한 저처럼 장학금이란 지원을 통해 열심히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오 신 행

2021년 아름드리 장학금

지금 저희 나라는 K-팝, 춤, 드라마, 음식, 한복, 스마트폰 등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앙드레 김에 이어 세계적인 실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전남을 알릴 수 있는 디자인 옷이나 액세서리 등을 제작해 블로그에 올리거나 학교기업으로 판매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해외로도 멋진 옷을 통해 우리 지역을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프로그램 등을 시도해 보고 또 역량개발에 필요한 교육이나 배움, 경험을 통해 한층 더 발전하고 싶습니다.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다’ 라는 말처럼 영어 실력을 검증 할 수 있는 토익과 토플 시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패션잡지의 트렌드를 살피고 국내외의 패션쇼와 관련 대회를 참여하고 지속적인 패션 정보를 멘토와 더불어 온, 오프라인으로 계속 공부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프랑스나 미국의 패션 대학원에 진학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 꿈을 이뤄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어느 날 뉴스를 보던 중 한 난민캠프에서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가 한 소년에게 “아가야, 네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

니다. 한 아이의 미래는 나라의 미래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젤리나 졸리의 이 말을 듣고 ‘아! 나도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젤리나졸리의 이 한마디는 저에게 봉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었고 그 후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6년도부터 매년 겨울 목포 원도심에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에게 사랑의 연탄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개당 3.6kg이 나가는 연탄을 적게는 몇백 장, 많게는 2 천장의 연탄을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과 옮겼습니다. 검은 연탄 가루와 한겨울에도 푹푹 떨어지는 저의 땀방울들이 섞여 제 얼굴과 손, 옷가지들이 더러워졌지만 추운 겨울을 이 연탄 하나하나로 인해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실 것이란 생각에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마을에 매년 친구들과 농촌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꽃밭에 철쭉 심기, 풀뽑기 등 마을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018년도에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아프리카의 진주라고도 불리는 우간다에 2주일간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우간다의 수도인 캄팔라에서 차로 5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한 시골마을에 있는 학교와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한국의 전통 놀이, 악기, 한글, 태권도 등을 가르쳐 주었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9년에는 대만과 인도네시아에 고아원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고아원에 남은 건물과 울타리에 페인트 봉사를 했고 또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문화교류를 통해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고아원 근처 난민촌에 가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러한 봉사를 통해 경험이 쌓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으며 세상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안젤리나졸리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듯이 저도 저의 전공을 살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흥원의 지역공헌 장학생에 선정되어 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선]

직업적인 꿈, 가치관으로서의 꿈, 목표로서의 꿈

윤서연

2021년 아름드리 장학금

꿈이라는 단어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꿈이 무엇이나고 물어보면 선생님, 경찰, 간호사 등 단순히 직업의 이름만을 이야기한다. 나의 생각은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꿈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인생 가치관으로서의 꿈, 직업적인 꿈, 목표로서의 꿈 등 말이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이 3가지에 대해 말해보려고 한다.

[직업적인 꿈, 국제정책전문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연히 읽게 된 국제기구와 관련된 책으로 인해 국제연합에서 일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꾸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꿈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제관계에 관심이 많아 ‘국제정책전문가’라는 이름의 꿈을 세우게 되었다. 국제정책전문가로서 여러 나라 간의 조약체결의 조인자로서 활동하고,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며 체결한 조약에 맞추어 잘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더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 있을지 탐구하고 제안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 직업에 대해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고용 홈페이지를 살펴보는 등 깊은 탐구를 통

해 외국어의 필요성,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 세계 여러 문화 학습 등의 과제를 설정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일하기 위해 언어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영어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UN공용어’ 를 중심으로 언어공부를 시작했다. 전남지역에는 소수 언어의 경우 배울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중국어의 경우, 학교로 오시는 원어민 선생님께 편지를 쓰거나, 먼저 다가가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끄러워 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며 HSK 5급을 뚫다. 또한 고등학교 때 추가교육과정을 통해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듀오링고(Duolingo)라는 앱을 통해 아랍어를 독학으로 공부하고 있다. 또한, 평소 CNN 뉴스를 찾아보고 다양한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 학습하고 있다.

[가치관으로서의 꿈, 세계 다양한 문화 속에서 세계시민으로서 행복하게 지내는 삶]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의 꿈이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국제 사회 속에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 소통하고 문화를 공유하며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외모와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의 꿈이다. 이렇기에 나에게 언어는 단순한 ‘말’ 이 아니다. 나에게 언어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문화를 배우는 창'이다.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자 중학교 때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한 한중 중학생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중국의 학교문화와 생활에 대해 직접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었다. 또한, 그때 만난 친구들과는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면서 서로 응원하고 같이 공부하는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 또한, 2019년 전라남도 저장성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중국 친구에게 우리나라 학교 문화를 소개해 주고 같이 수업을 듣는 특별한 경험도 했다. 2020년 1월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미국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미국의 학교문화와 생활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특히, 내 홈스테이 호스트 가족이 말레이시아 가족이어서 접하기 힘들었던 이슬람 생활방식과 말레이시아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난 이런 세계화의 삶 속에서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다양한 문화를 접할수록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청소년참여활동을 나는 5년째 해오고 있다. 물론 어렵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적응해 나가고 의견을 내는 나 자신을 보면 뿌듯하다.

청소년 참여활동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불편함에 대해 사회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것으로,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질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작게는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다. 나는 학교 학생회 활동과

동시에 전남학생의회에서 학교 대표로 활동을 했다. 다른 학교 대표들과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었다. 나는 목포시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목포청소년100인포럼’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작년부터 올해 역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기존에 소수의 청소년들이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다. 또한, 청소년들의 의견 교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정책을 실제 정책 수립의 과정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실현이 되어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활동과 다른 점이었다. 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님, 목포 시장님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관심을 갖고 사회 속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표로서의 꿈, 전남 지역의 국제공무원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도움주기]

내가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게 꿈이라고 말할 때마다 대부분 공통의 반응을 보인다. “뭐 하는 건데?” 전남 지역에는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고, 실현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 아주 힘들다. 길이 정해져 있는 교사, 간호사 등과 달리 워낙 길이 다양하고, 분야가 나누어져 있다보니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할 수 없어서 좌절도 했지만, 동시에 직접 이 길을 개척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영어로 된 자료나 중국어로 된 자료 등 외국의 자료를 참고하고, 외교부 홈페이지

이지에 있는 참여후기, UN Careers에 있는 고용 정보에 나와 있는 조건 등을 참고하여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은 때로 너무 막막하고,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나와 비슷한 꿈을 가진 청소년들에게는 내가 멘토가 되어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목표를 중심으로 한 전남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진로 특강과 같이 강연도 하고, 다양한 질문에 답해주며 도와주고 싶다. 또한, 이 분야는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 유학 등 금전적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이런 부분에 있어 전남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연결해서 청소년 참여 분야에서도 계속 기여를 하고 싶다. 청소년 활동은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사실 학교에서 이에 대해 잘 아는 학생은 많이 없다. 또한, 이 활동의 중요성을 잘 모른다. 나는 청소년 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처음이고 어색한 친구들에게 전혀 어렵지 않고, 이 활동을 통해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나의 바람은 내가 꿈꾸는 직업을 갖고, 꿈꿔온 일을 하며, 꿈꾼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제 사회, 크게는 이 지구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또한,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구나 나를 떠올렸을 때 한국인이라고 떠올리면서, 한국인은 정말 멋진 사람이라는 인식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또한, 내가 자라온 전라남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기여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입선]

실패가 아닌 또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기회

서 태 현

2021년 아름드리 장학금

“아! 산 지 얼마 안됐는데...” 그 날은 전남과학고등학교 최종 합격자 발표일이었고 그토록 기다리던 천문대를 가는 날이기도 하였으며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내 첫 핸드폰을 깨 먹은 날이기도 했다. 사실 천문대를 가기 며칠 전, 담임선생님께서 과학에 관심이 있고 천문대를 가고 싶은 아이들이 있는지 지원을 받았고, 나 또한 지원하여 천문대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가기로 한 천문대는 특이하게도 누워서 별을 관측하는 곳이라고 하였기에 천문대를 향한 나의 기대감은 그 날이 과학고등학교 최종 발표일이라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부풀어져만 갔다. 기대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드디어 천문대를 가는 날이 되었다. 천문대가 멀어 점심시간에 출발해야 했기 때문에 같이 천문대를 가는 친한 친구 몇몇과 밥을 일찍 먹으려 4교시 수업을 일찍 끝내고 먼저 나와서 줄을 섰다. 첫눈이 올 정도로 유난히 날씨가 추웠던 탓일까, 오들오들 떨며 급식을 기다리다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고, 화면 속 글씨조차 안 보일 정도로 액정이 산산조각 났다. 핸드폰이 깨지고 잠시의 정적 뒤에 마치 불합격이라는 불행을 암시하듯이 오늘이 최종합격자 발표일이라는 사실이 불현 듯 머리를 스쳐지나갔다. 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합격할 것이라 생각하며 버스에 몸을 실었고, 머리를 기댄

지 몇 분 만에 잠에 들게 되었다.

“일어나! 너 발표 시간 되지 않았어?” 내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을 알려준 한 친구가 깨우는 소리에 난 화들짝 일어났고, 친구의 핸드폰을 빌려 두근대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내 수험번호는 찾을 수 없었다. 이윽고 참았던 눈물이 터졌고, 이런 일로 단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던 나는 30여 분간 혼자서 숨죽여 울었다. 울음이 몇 자 마음을 진정시킨 채 숨을 골랐다. 모든 것들이 고요해지고 그제야 산산조각 난 화면 사이로 비치는 수많은 알림이 보였다. ‘아마 최종합격자 발표일이 되어 붙었는지 물어보겠지.’ 하지만 난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3년간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며 난생처음 실패를 겪었고, 그 실패에 대한 타인의 질타가 두려워 그냥 핸드폰을 꺼버렸다. 천문대에 도착한 뒤 늦은 밤, 난 부모님에게 혼이 날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조심스레 결과를 전했다. 내게 돌아온 것은 짜증 뒤섞인 질타가 아닌 수고했다는 말이었다. 칭찬과 위로에 인색했던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위로는 누구의 위로보다 크게 다가왔고 과학고등학교가 아니면 인생이 무너질 줄만 알았던 16살의 나는 과학도로서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꿈을 품었고, 지금은 전라남도 장학생에 선발되어 또다시 대학 합격을 기다리는 19살이 되었다. 이번에도 분명 몇몇 대학은 떨어지겠지만, 그때보다 한층 성장한 내가 되었기에 이번에 마주할 불합격은 실패가 아닌, 또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찾게 해 줄 기회가 될 것이라 굳게 믿는다.

[입선]

세계적인 골프선수 ‘이 담’

이 담

2021년 새천년 으뜸인재

안녕하세요 해남중학교 1학년 골프 선수 이담입니다. 으뜸인재 면접을 받으러 오라고 안내 문자를 받고 2021년 6월 4일 여러 심사위원님들 앞에서 골프를 이야기하고 왜 골프를 하는지 왜 골프가 좋은지 여러 질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진심을 보여드리고 저를 알려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생애 첫 면접이라 설레이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했지만 골프채를 들고 골프채와 함께 면접을 보니 힘이 나고 든든했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며 저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시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농사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풍과 장마 그리고 수해로 여러 해 고생만 하시고 이번 여름에도 침수 피해를 입어 죽은 나무들을 뽑아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운동하러 다닌다고 농사일도 많이 못 도와드리고 죄송한 마음은 늘 있지만 엄마 아빠도 힘든 일 배우면 고생한다고 농사일을 안 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프고 답답합니다.

저희 엄마, 아빠께서는 제가 원하는 건 항상 응원해 주십니다. 힘든 상황에 고생하시면서도 저에게 골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꼭 아들 키운 보람을 안겨 드릴 것입니다. 프로선수가 되는 것이 제 꿈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부모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골프선

수이담!' 무안cc, 군산cc, 경남 노벨cc, 태안 솔라고cc 등 여러 시합장을 다니면서 차에서 잠을 자며 이동하고 저를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좁은 운전석에서 쪽잠을 주무시는 엄마께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시합 참가비와 숙소비와 골프라운딩 비용 등 여러 경비를 생각하면 골프는 정말로 비용이 많이 드는 운동입니다.

으뜸인재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몰라요. 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린 것 같아 아주 기분 좋고 좋았습니다. 시합 전 연습라운딩을 한 번 더 갈 수 있게 되었지요. 숙소에서 편하게 잠도 자고 시합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올해 제 목표는 중1 가운데 1등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1등을 했습니다. 군산cc에서 하는 MFS 골프미니투어 시합에서 1위(70타), KPGA주니어선수권 대회에서 13위(69.74타), 전남대표선수선발전 1위, 용인 슛게임골프대회 1위(-13)를 하였습니다.

으뜸인재 장학금은 저에게 우승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중2가 되는 내년 국가대표선수가 되기 위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입니다. 제가 PGA프로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 한발씩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뜸 장학생이 되고 자신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안정환 감독님, 가수 이승철 선생님, 아나운서 김성주 선생님과 함께 강원도에서 골프예능을 촬영도 했습니다. “내 이름은 캐디” 11월 24일 밤9시 많이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광주교통방송 (라디오) 10월 27일 오전 생방송 인터뷰도 했습니다. (해남 중1 이담 골프선수의 최근 우

승과 골프이야기) 우승한 후 여러 시합 성적과 저의 가능성을 보시고 mfs골프에서 골프클럽과 골프 가방 등 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불빅에서도 골프용품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게 다 으뜸인재 장학생이 되어 그 힘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저에게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 해남하면 생각나는 골프선수 이담이 되고 싶습니다. 완도의 최경주 프로님과 강진의 이재경 프로님과 만나 전남을 이야기하고 함께 라운딩하고 싶은 희망도 가져봅니다.

[입선]

내 발자취

권영운

2021년 특별지정 장학금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졸업 예정자 고등학교 3학년 권영운입니다. 올해 힘들었던 상황 속 신청한 장학금을 통해 제에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고,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에세이에 참가함으로써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부족한 환경이더라도 남부러울 것 없이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자는 마인드를 가지신 엄마가 계십니다. 덕분에 항상 모자랄 것 없이 살아왔지만 학년을 거듭할수록 커지는 부담을 엄마께 주려들이고 싶어 취미와 학업에 기울였던 부분에서 저 스스로 제약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가 충당하고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 하였으나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은 역시나 무리였습니다. 그런 제 속사정을 아신 엄마께서는 장학금을 신청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언을 해주셨고 저는 그동안 엄마께서 뒷받침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는 제 학업 성적으로 당당히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책과 매체들을 보면 노력이 성적향상에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노력이 없으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입학한 뒤 앞선

내용과는 다른 현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노력은 단지 열심히 했다는 것 밖에 미치지 못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소규모의 경쟁사회인 고등학교 안에서 기본베이스도 없던 저는 다른 친구들을 뛰어넘기 위해 2,3배는 더 열심히 해야 했고, 더 좋은 강의를 들어야 했으며 많은 책들을 통해 모든 유형을 꿰뚫고 있어야 했습니다. 제 궁극적 목표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만이 답이었고, 그 노력을 통해 얻게 된 제 성적이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돼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포기할 수 없었고 졸린 눈을 부릅뜨며 매일 밤을 새웠습니다. 장학금을 이용해 강의에 등록하였고 많은 책들을 사 아침밤낮으로 문제를 익혀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뛰어넘기 힘든 장애물에 많은 좌절과 눈물을 머금기도 했지만 많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제 목표를 위해 설 틈 없이 보폭을 넓혀갔습니다. 그런 제 발자취는 점차 더 큰 보폭을 지니게 되었고, 어느새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결승선에 결국 도달하였습니다.

졸업을 앞둔 지금, 고등학교 생활을 되돌아보니 3년의 시간 속 가장 큰 주축역할을 해주었던 것은 바로 장학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여러 혼란한 상황속에서도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학업에 대한 여러 시도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환점을 고른다고 한다면 이 때를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학금을 통해 새로운 영역의 공부를 스스로 시도해가며 깨우치는 학

문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은 엄마께서 이런 제 모습을 보시며 흐뭇해하신다는 점입니다.

현재 제 장기적인 목표는 건축학부에 진학하여 안정적인 상황이 되면 이런 프로그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환경에 놓인 학생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장학금을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저와 같은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장학금을 통해 더 성장한 학생들을 모두 정상에서 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도 자신의 꿈을 쫓는 이들을 응원합니다!

[입선]

오늘도 달리는 아이

부민지

2021년 희망나래 장학금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숫자에 불과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도 고등학교에 오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다. “난 아직 어린데, 시간에 얽매어 살아야 할까?” 라고. 하지만 고등학교는 달랐다. 주변 친구들은 벌써 미래 계획을 세워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던 나는 바라만 보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었던 것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컸다. 그렇게 학교 생활을 그럭저럭 보내던 중에 바로 위 선배들의 환송식 행사가 열렸다. 하루 둘씩 군대 입영을 하는 것을 보고 내 차례도 멀지 않음을 느꼈다. 스터디 노트를 펼쳐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았다. 아무래도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야 가산 점수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자격증을 취득해야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교련 선생님을 찾아갔다. 진로 상담 내용 중 선생님은 제일 먼저 희망하는 군과 병과를 선택하고, 그 병과에서 무슨 임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지 설명해주며 천천히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덕분에 차분하게 마음을 다듬을 수 있었다.

찾아보니 취득해야 할 자격증은 다양하게 있어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자격증부터 먼저 취득하기로 했다. 힘든 돌길을 걸어가야 하는 나를 하늘이 응원했을까? 자격증 시험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이에 더 욕심이 생겨 새로운 것도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 제일 먼저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에 도전을 했다. 워드프로세서는 필기와 실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해진 점수를 넘어야 합격을 받을 수 있다. 필기는 예전부터 취득했지만, 실기는 미뤄둔 지 오래다. 내가 한글타자를 잘못하기에 불합격이 나올까 두려워 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장학금을 지원받은 만큼 나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고 싶었다. 매일 아침 자습시간에는 타자 연습 40분, 점심시간에는 작업하는 순서와 단축키 익히기, 저녁에는 기숙사에서 문제 유형 작성해보고 부족한 점 더 연습하기. 철저히 실력을 키우기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끊기지 않게 노력했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면 늘 실수하는 곳에서 감점을 당하기 일쑤였으며, 타자 실력이 크게 변하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날에는 나만의 이지트에서 하늘을 올려보며 바람을 느끼며 쉬어가며 다시 마음을 잡았다. 시험 날이 다가오고 긴장은 물론 연습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친구가 안아주면서 즐기고 오라고 했다. 시험 내용은 생각나지 않지만, 친구의 말은 지금도 기억한다. 비록 합격하지 못했지만 도전했다는 자체에 의미를 두고 내년에 다시 한번 더 발전한 실력으로 도전해서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다음으로 도전한 자격증은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사, 즉 드론 자격증이다. 우연히 학교 근처에 있는 드론 학원이 있었기에 다니게 되었다. 평소에 고학기술 관련한 기계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웠다. 조종하는 키도 예민하게 해줘야 했으며 기상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드론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야 하는 것을 느껴 학원 선생님께 책을 추천받은 뒤 서점에 갔다. 서점에서 추천 책과 미래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책들을 구비하여 드론의 이론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읽었다. 또한 학원에서 정해진 시간 외에도 연습을 하고 싶어서 종종 찾아간 날들도 많이 있었다. 관심에서 시작된 드론은 어느새 나의 취미가 되어갔다. 드디어 드론 시험 날이 코앞으로 왔다. 워드프로세서와 달리 긴장을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얼마나 드론을 좋아하는지 표현하고 싶은 마음만 들었다. 기상은 좋지 않았지만 비행은 완벽하게 해냈고, 구술 질문도 어렵지 않아 당당하게 말했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내가 노력해왔던 것을 인정받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뻐다. 지금은 종종 학원에서 유지비행을 하며, 교관 일을 하고 있다. 장학금 지원을 받은 뒤에 나는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다. 다른 애들을 뒤에서 쳐다보기만 했던 내가 내 잠재 능력을 찾아내서 표현할 수 있으며, 위기가 찾아와도 대처할 수 있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그 증명이라고 볼 수 있다.

“멋진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삶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준비

가 되어 있는 자세에 따라 좌우된다.” 이 말처럼 좋은 기회는 누구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성공한 삶과 제자리인 삶으로 나뉘진다. 나 역시도 제자리였던 삶을 살아왔다. 늘 타인과 비교하며 자기비하를 했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똑같은 하루를 보내왔다. 그러나 인생은 누구에게나 반전이 있는 법이다. 그리고 그 반전은 기회로 이어진다. 혹시나 자신에게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다고 느끼더라도 괜찮다. 기회는 늘 내 옆에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앞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다.

[입선]

천천히 서두르면서!

고 은 영

2021년 희망나래 장학금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만들어라!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유로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이 기차가 우리 가족을 싣고 부산으로 가는 여행 기차였으면.....’ 하는 바람과는 달리 17살 전라도 소녀인 저는 혼자서 낯선 땅 부산으로 취업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없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저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 지역에서 온전히 혼자 힘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야 했으며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나마 의지하고픈 마음에 그 무뚝뚝한 부산 사나이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신혼 생활은 너무도 밑바닥부터 시작한 것이라 가난에서 벗어나길 힘들었습니다. 결혼 후 생활고는 지역감정으로 이어져 전라도 며느리인 저는 늘 시댁 식구들의 구박덩어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겹치고 반복되는 상황에서 남편은 빚을 얻어 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어린 남편과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기에 열정만 앞세웠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냉정하고 냉철하게 문제를 풀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사업은 실패하고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랐지만 막상 실패하고 나니 가장 비참한 것은 저였습니다. 그

래서 결국 저는 부산에서의 생활을 접고 빛과 아이들을 데리고 목포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의 전부를 남편과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싶지는 않았습
니다. 2001년도부터 열심히 일했습니다.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다보니 점점 가정형편은 나아지게 되었습
니다. 나이 쉰 살에 대출을 받아서 꿈에 그리던 집을 마련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 빛도 갚고 50살이 넘은 후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50살의 내 삶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제 자신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져 보았
습니다. - 생각 후, 실천-. 너무나 어린 나이에 가난으로 포기해
버린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깊어지면서 여러 가
지 이유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렵게 용기를 내어
결국엔 학교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쉰두 살에 성인학교 만학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고등학교 졸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제 스스로가 사랑스럽고 그 동안 잘 살아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전남인재평생교진흥원의 장학금은 이런 제게 또 하나의
자부심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신이 마음먹기에 따라 자신의 삶은 달라집니다. 인생이란 내
자신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
니다. 지나친 걱정만 앞세우는 것은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없습
니다. 지나고 나면 걱정한 만큼 보다 아무일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
다. 5년 후의 나의 모습에 대해 아직은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섭

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하면 분명히 기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먼 훗날 ‘사회복지사’의 모습을 기대하며, 용기를 내어 그 꿈을 향해 앞으로 쪽 걸어가 볼까 합니다.

천천히 서두르면서.....